



US메트로뉴스



Cover story

사회복지 예산안 '더 나은 재건법'

양로원 대신 홈케어 간병 확대
메디케어 치과, 안경은 제외

“메디케어로 보청기 혜택”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보청기를 제공한다. 하지만 당초 예상됐던 치과와 안경은 제외됐다.

또 메디케어(캘리포니아는 메디칼)의 보조를 받는 시니어들의 홈케어 옵션을 확대한다. 메디케어는 수입이 제한된 극빈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 지원 프로그램으로 1965년 출범 이후 780만 명의 시니어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그동안 많은 주들이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장기 간병을 모두 양로병원 등 요양 시설 입원에 위탁했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장기 간병을 홈케어로까지 확대 하고 홈케어 간병인들의 급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유치원 입학 연령 이전의 3~4세 어린이들이 다니는 프리킨더가든 학교가 시험 운영된다.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크게 줄여 부모들이 자유롭

게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의회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내년 회계 연도의 사회 복지 예산안의 주요 골자다.

연방 의회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2차 대선 이후 최대 규모인 내년 회계연도(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6조 달러 예산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6면에 계속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알립니다

제1회 '시니어 미술 공모전' 열린다

본보와 리앤리 갤러리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시니어 미술 공모전'이 시작됐습니다. 본보 창간 1주년 기념 행사이기도 한 이번 공모전은 55세 이상으로 미술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이라

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작품 마감은 1월 15일까지이며 입상 작품에는 소정의 상금(대상 1,000달러), 상품과 함께 리앤리 갤러리 전시 기회가 제공됩니다.

리앤리 갤러리의 아그네스 리 관장은 "취미로 또는 전공을 했지만 그동안 붓을 놓고 생활에 전념 했던 많은 분들의 그림에 대한 열정을 모아보자는 취지라면서 "시니어들에게는 좋은 발표의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소개했습니다.

20면에 계속

INSIDE

소셜연금 내년 소셜연금 92달러 더 받는다	3면
연금 근로점수 모자라고 세금 안내 연금 못 받는 사람 많아	4면
Cover Story 사회복지 예산안 더 나은 재건법	6면
코비드 끝났다고 끝난것은 아니다	13면
패혈증 클린턴 패혈증상 매년 27만 미국인 목숨 앓아감	14면
Issue -팬데믹으로 날카로워진 고객 -화물선 대란 미국인 과소비 때문	18·19면
칼럼 김연신의 영어 한마디	20면
전문 칼럼 정대영 변호사	21면
잘먹고 잘살기 홍지은 기자의 웰빙이야기	24면
Culture & art 이경수의 미술이야기	26·27면
칼럼 김동희 칼럼	30면

풍부한
경험
성실
신뢰

제인 김 CPA

(323) 840-3238

전 남가주 한인 공인 회계사 협회 회장

예술의 향기가 있는 곳

lee & lee Gallery

(213) 365-8285

3130 Wilshire Blvd #502, LA, CA 90010

leenleegallery.com

US metronews

매월 첫번째 목요일 선보이는 'US 메트로 뉴스'는 생생한 정보, 유익한 읽을 거리와 따뜻한 소통, 맛있는 이야기를 담은 웰빙가이드입니다.

문의 (562)538-8581
contact@usmetronews.com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함께하는 어르신들은 걱정없습니다!



메이저 리그 코리안 특급
박찬호

건강을 지키자!

치과

침술

안경

보청기

일반의약품
(OTC)

해외 여행시
응급치료

차량
제공

발기부전
치료제

기타
다양한
혜택

운동시설
이용

메디케어
보험 가입 및 변경 기간
10월 15일부터!

한인 최대 규모의 의사 그룹 **서울 메디칼 그룹!**

많은 건강 보험 회사와 함께
한인 어르신들의 다양한 의료 혜택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 혜택은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니 가입전에
반드시 전문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와 상의하십시오.

TEL 213.389.0077 • 800.611.9862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내년 평균 소셜 연금 92달러 더 받는다

COLA 5.9%로 1982년 이후 최대폭
만기 수령 최대 185.70달러, 70세 최대 229.80달러
연방 극빈 지원금 SSI도 47달러 올라

2022년 소셜 시큐리티 생활비 조정률(COLA)이 5.9%로 확정됐다. 최근 10여 년 사이에 가장 큰 폭 상승이며 1982년 8.7% 인상 이후 가장 크게 오른 수치다. 이에 따라 내년 소셜 연금의 소셜 연금 평균 금액은 1,651달러로 월 92달러 상승한다.

물론 상승 금액은 현재 얼마의 연금을 받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연금 액수가 적다면 92달러 미만의 상승 연금을 받을 것이고 만기 은퇴 연령 때 최대 연금 3,148달러를 받았다면 185.70달러, 70세 받는 최대 연금 3,895달러를 받는다면 229.80달러가 추가된 4,124.80달러를 받는다.

결국 늦게 연금을 신청할수록 더 많은 연금 상승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연간 소셜 연금 증가 금액이 최근의 의료비 상승과 주거비 상승을 감당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며 이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메디케어 보험료 6.7% 상승 전망

소셜시큐리티국은 13일 물가 상승률에 따른 생활비 조정률(COLA)을 5.9%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메디케어 보험료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현재 개인 8만8,000달러, 부부 17만6,000달러 미만의 수입자의 기본 파트 B 보험료는 148.50달러다. 일부 전문가들은 158.50달러로 10달러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확한 금액은 11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8월 메디케어 신탁 관리처는 2022년 파트 B 표준 보험료는 6.7%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6.7%가 확정된다면 표준 보험료는 8.90달러가 인상된 157.40달러로 예상된다.

메디케어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해도 일단 시니어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 수당도 올라

이번 COLA 5.9% 인상으로 장애 수당도 1,282달러에서 1,358달러로 오

른다. 또 내년 소셜시큐리티 세금 한계 금액도 조정된다.

소셜시큐리티 세금은 2021년 기준으로 14만2,800달러까지만 낸다. 그 이후 수입에서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 수입한계가 내년 14만7,000달러로 4,200달러 올랐다.

이번 COLA 인상은 연방 정부는 퇴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이번 큰 폭 상승이 장기적으로 미국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방 균형 예산 위원회는 소셜 시큐리티 재정 고갈 현상이 2032년으로 3년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밝혔다.

큰 폭 상승 이유는

소셜 연금이 최근 수십여 년 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는 최근의 급격한 물가 상승 때문이다.

매년 COLA는 3분기 '도시 근로자 및 사무직 근로자의 소비자 가격 지수' (CPI-W)를 근거로 계산된다. 지난 9월 CPI-W는 전달에 비해 0.4% 올랐고 전년 대비 5.4% 상승했다. 지난 1991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 상승이다.

그동안 노인단체들은 COLA의 기준을 CPI-W로 잡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CPI-W는 시니어들의 지출 특히 의료비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 메디케어 보험료 상승과 함께

2022년 변경되는 소셜 연금 규정 표 (단위: 달러)

2021년		2022년	
14만2,800	소셜시큐리티 세금(OASDI)한계	14만7,000	
모든 수입	메디케어 세금(HI) 한계	모든 수입	
1,470	1 크레딧 확보 최소 금액	1,510	
1만8,960(1년) 1,580(월)	만기 연령 이전 은퇴 연금 잠정보류 한계 (초과 금액 2달러당 1달러 홀드)	1만9,560(1년) 1,630(월)	
5만0,520(1년) 4,210(월)	만기 연령 되는 해 연금 잠정보류 한계 (초과 금액 3달러당 1달러 홀드)	5만1,960(1년) 4,330(월)	
보류금액 없이 모두 지급	만기 연령 이후	보류금액 없이 모두 지급	

COLA 5.9%로 인한 연금 및 관련 금액 비교표 (단위: 달러)

2021년		2022년	
3,148(월)	만기 최대 소셜 연금	3,345(월)	
794(월)	극빈자 SSI 연방 웰페어개인	841(월)	
1,191(월)	부부	1,261(월)	
2,000	SSI 재산 한계(개인)	2,000	
3,000	SSI 재산 한계(부부)	3,000	
1,565	모든 은퇴자 평균	1,657	
2,599	부부 연금 수령	2,753	
3,009	미망인과 자녀 2명	3,187	
1,467	자녀 없는 미망인	1,553	
2,250	장애인 근로자, 배우자 및 1명 이상 자녀	2,383	
1,282	모든 장애 근로자	1,358	



시니어들은 메디케어가 커버해 주지 않는 의료 비용과 약품으로 큰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도시 근로자 기준만 가지고는 충분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며 COLA 인상이 크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CPI-W가 아니라 '노인을 위한 소비자 물가지수' (CPI-E)가 만들어야 한다고 연방 의회를 압박하

고 있다. 많은 시니어들은 사실 소셜 연금에 의존해 살고 있다. 또 일부 시니어들은 소셜 연금만 가지고 산다. 소셜시큐리티국에 따르면 시니어 1/4은 수입의 90% 이상을 소셜 연금에만 의존해 살고 있다.

내년 소셜 연금이 오르는 해도 메디케어 보험료 인상과 생활비 상승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최소한 최근 수년 내 지지부진하게 연금이 올랐던 것에 비하면 크게 향상된 것이다.

비영리 무당파 시니어 그룹인 '시니어 시티즌 리그'에 따르면 소셜 연금은 지난 21년간 55% 상승했지만 의료비용은 145%나 올랐다. 또 주거 비용은 동 기간 중 118%가 상승했다. 소셜 연금 증가분을 2배 이상 앞지른 수치다.

2021년에는 COLA 1.3%에 불과

'소셜시큐리티 및 메디케어 보건 전국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평균 연간 COLA는 1.65%에 그쳤다. 지난 12년간 COLA가 전혀 오르지 않은 해도 3년이나 됐다.

조지타운 대학 맥도나우 비즈니스 스쿨의 제임스 에이젤 부교수는 "은퇴자들 상당수가 노인들의 생활비 상승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인들이 실제 음식을 구입하거나 의사를 방문하는 비용이 소셜 연금 수표 금액보다 훨씬 더 빨리 상승한다는 것이다.

COLA는 2009년 5.8%로 크게 오른 바 있다. 하지만 그 후 2년 동안은 전혀 오르지 않았다.

사실 올해 COLA는 당초 예상됐던 6.0~6.2%에 미치지 못했다. 급격한 상승세를 타던 물가가 다소 주춤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향후 COLA가 동결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표출되고 있다.

소셜 연금 인상 기준 바꿔야

그렇다면 노인단체들이 주장하는 대로 COLA를 CPI-E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역시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CPI-E가 항상 CPI-W를 앞지르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12개월 동안 CPI-W가 오히려 CPI-E보다 더 빨리 상승했다. 오히려 매달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연쇄 CPI'가 더 시니어의 물가 상승을 대변할 수 있는 좋은 지수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어찌됐든 COLA를 반영되는 지수는 연방 의회가 결정해야 가능하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65세의 큰 선물!!

메디케어 신청, 모든플랜 선택 및 변경 도와드립니다.

To speak with a Licensed Agent



이정인 (213)503-1810

(Jessica J. Kim)

foxrainlady@gmail.com

무료 상담

#OG15778

메디케어, 오리지널, Supplement, PDP(약보험) 메디칼, Extra Help(보조) 본인에게 적합한 맞춤형플랜

근로점수 모자라고 세금 안내면 연금 못 받아

소셜연금 받지 못할 때

**연금 받으려면 40 근로 크레딧 있어야
모자란다면 한국서 일한 기록도 합산
철도 공무원은 자체 연금 제도 혜택
소셜 세금 안 내면 연금 지급도 없어**

미국인이거나 62세부터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이하 소셜 연금)을 받을 희망에 부풀 것이다. 열심히 일한 후 즐거운 은퇴 생활을 누리려면 소셜 연금은 필수다. 하지만 소셜 연금이 은퇴 생활을 여유롭게 지낼 만큼 충분히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소셜 연금은 은퇴 전 수입의 평균 40%만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만들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미국 은퇴자의 절반 가까이 소셜 연금이 수입원의 90%를 차지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소셜 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베니핏을 받을 충분한 근로 기록이 없거나 일부 연방 공무원, 교사 등은 소셜 연금을 받지 못한다.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 부족

일을 전혀 하지 않아도 소셜 연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가 충분한 근로 기록을 가지고 있거나 장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 기록이 있어야 소셜 베니핏을 받을 수 있다.

소셜 시큐리티국(SSA)은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 즉, 근로 기록 40점(10년)을 '충분한 근로'로 본다. 2021년 기준으로 수입의 1,470달러를 1 크레딧으로 인정해 준다. 1년에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은 4 크레딧이므로 10년을 일하면 40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1년에 5,880달러 이상만 버는 것으로 세금 보고하면 기본 4 크레딧을 딸 수 있다. 매우 간단하다.

만약 연방 최저 임금인 시간당 7.25달러를 번다면 소셜 시큐리티 1 크레딧을 받으려면 202.75시간이 필요하다. 이 임금으로 50주 동안 주당 17시간을 일한다면(2주 유급 휴가 가능한 시간) 1년에 받을 수 있는 4 크레딧을 획득할 수 있다. 이는 파트타임 일만 해도 충분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크레딧은 평생 동안 축적되며 일을 하다가 중단했다고 해서 사라지

지 않는다. 40 크레딧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일을 그만뒀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면 그동안 쌓았던 크레딧에 추가로 크레딧을 쌓을 수 있다는 말이다. 현재 얼마의 크레딧을 가지고 있는지는 소셜 시큐리티 공식 웹사이트의 '마이 소셜 시큐리티 어카운트' (my social

security)를 개설한 후 확인해 볼 수 있다. 여기에 개인의 모든 기록이 들어 있다.

62세 이전에 숨진다

소셜 연금은 62세부터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만약 충분한 근로 기록을 가진 사람이 죽으면 그의 배우자와 부양 자녀는 '생존자 베니핏' (survivor benefit·생존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존 배우자는 60세부터 숨진 배우자의 근로 기록과 수입에 따라 생존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있다면 50세부터도 가능하다. 물론 숨진 배우자가 40점 이상의 충분한 근로 크레딧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

만약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라면 장애인 보험(SSDI)을 신청해 자신이 낸 세금에 따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말기 환자가 62세를 넘었

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독신이라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나중에 배우자를 위해서도 좋을 수 있다. 배우자 연금은 근로자가 받는 금액의 최대 50%까지 지급된다.

일부 이혼 배우자

이혼 배우자도 전 남편 또는 전 부인의 근로 기록으로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결혼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전업주부로 배우자와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혼 배우자 연금을 받으려면 역

산다면 연금을 받지 못한다. 북한을 비롯해 쿠바,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트루카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소셜 시큐리티 페이먼트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쿠바와 북한을 제외하고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소셜 시큐리티 웹사이트의 '페이먼트 어브로드 스크리닝 툴' (payment abroad screening tool)에서 검색해 볼 수 있다.

일부 비 시민권자

근로 크레딧 40점 이상을 획득했다면 비 시민권자도 소

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 충분한 근로 크레딧을 쌓지 못한 비 시민권자가 외국에서 일한 기록이 있다면 합산해 40 크레딧을 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이 들어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의 경우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해 해외 30개국과 사회보장법 협약(Totalization agreement)을 맺어 해당 국가의 근로 기록도 미국 근로 기록으로 인정해 준다.

그렇다고 미국에서 모든 연금을 지불해 주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해당 국가에서 일한 만큼의 비율로 연금을 각각 받게 된다. 다만 미국에서 인정받으려면 6 크레딧 이상의 근로 기록을 가져야만 이 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 근로 기록 6 크레딧을 받지 못하면 소셜 연금 지급이 안 된다.

정부 및 철도 근로자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은 직종의 근로자들이다. 1984년 이전 채용된 연방 정부 공무원은 '시빌 서비스 은퇴 시스템' (CSRS)에 포함된다. 여기서 은퇴, 장애, 생존 배우자 연금 등을 제공한다. 이들 근로자들은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는다. 따라서 소셜 연금 대상이 아니다.

다만 다른 직장에서 근무했거나 배우자 근로 기록으로는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CSRS에서 지급되는 연금이 소셜 연금에서 일부 공제된다.

요즘은 '연방 고용 은퇴 시스템' (FERS)가 CSRS를 대체하고 있다. FERS 대상자들은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대부분의 미국 주들과 지방 정부 공무원들이 '연방 218조 협약'에 따라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교사 등 공립학교 시스템, 대학 근로자들은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소셜 연금도 받지 못한다. 이들은 직장 연금을 받는다.

철도 근로자

철도국에서 최소 10년(1995년 이후는 최소 5년) 이상 근무했다면 연방 정부 산하 철도 은퇴위원회(RRB)를 통해 은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10년 이하(5년 이하) 근로자는 RRB를 통해 연금을 받지 못하지만 소셜 시큐리티국으로 이첩돼 소셜 연금 지급 조건 10년을 채운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 탈세자

자영업자들은 고용주와 고용인으로서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낸다(각 6.2%씩 12.4%). 하지만 연방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면 소셜 세금도 내지 않는다.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에서 세금을 낸 기록이 없으면 소셜 연금도 받지 못한다.

일부 65세 이민자

은퇴 후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은 40 근로 기록을 갖지 못할 수 있다. 소셜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6점 이상의 근로 크레딧을 획득해 한국 등에서 일한 기록을 합산하면 된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웰빙 가이드

US메트로뉴스

정보가 많아서 좋아요



신문과 인터넷으로
광고해 드립니다!

광고·구독·배달
(562)538-8581
contact@usmetronews.com

usmetronews.com

2022년 연례 가입 기간입니다, 팬데믹 기간 중 플랜 옵션을 선택하는 팁을 알려 드립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및 메디케어 처방 약 플랜 연례 가입 기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메디케어 자격 요건을 갖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2022년 보장 혜택 요구 사항에 맞게 건강 관리 플랜에 가입, 전환 또는 탈퇴할 수 있습니다.

지속되는 COVID 19 팬데믹으로 인해, 안전을 유지하며 여러분에게 알맞은 계획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메디케어 정보와 자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 온라인 교육 행사 및 상담원과 일대일 미팅은 모두 귀하의 메디케어 플랜 옵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와 동시에, 귀하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허위 제안 및 기타 사기를 방지하면서 온라인 메디케어 자원에 접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메디케어 연례 가입 기간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팁입니다.

1. 온라인 도구 사용하기

Medicare.gov의 메디케어 플랜 찾기 (Medicare Plan Finder)를 이용하여 플랜, 혜택과 평균 회원을 기준으로 각 플랜의 예상 비용을 비교하십시오. 처방 약 비용 보장에 도움이 되는 메디케어 파트 D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해당 처방 약의 이름을 입력하여 귀하가 고려하고 있는 플랜이 해당 약품을 보장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Medicare.gov에서 Part C 또는 MA 플랜이라고 불리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대해 알아보고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회사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

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제공하는 보험 회사는 플랜 및 서비스, 처방 약 가격 정보 및 기타 혜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치의나 다른 의료 제공자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의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연결하기

대부분의 보험 회사들은 2022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옵션을 검토하기 위해 온라인 워크숍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 상담원과 대면 또는 전화 혹은 영상 채팅을 통한 일대일 미팅을 예약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교육 행사나 미팅에 참석하기 전에 귀하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질문 목록을 준비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플랜에 시력, 청각, 치과 진료 혜

택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원격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진료 예약 장소까지 교통편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3. 메디케어 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세요

연방 메디케어 기관은 사기범들이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메디케어 번호, 은행 정보 또는 기타 개인 정보를 훔치기 위해 팬데믹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전화, 이메일, 문자 메시지, 소셜 미디어 또는 여러분의 집을 방문하여 연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메디

케어 번호는 의사, 약사, 병원, 의료 보험사 또는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알려주십시오. 발신처를 알 수 없는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지 마시고, 원하지 않은 전화는 끊으십시오.

온라인으로 플랜 정보를 이용하기 불편하다면, 올해는 상담원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또는, Medicare.gov에 통화 설정 옵션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Medicare.gov를 방문하거나 1-800-MEDICARE(800-633-4227)로 전화하십시오.

AEP Medicare 101 Byline - 500 English Words version Korean translation

저자 : Toyo Chen / Senior Manager, MarketPoint, Humana 휴메나, Francine Chong / Broker Relationship Manager, Humana 휴메나

곧 65세가 되시거나 Medicare에 처음 가입하십니까?

여러분의 Medicare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Humana 공인 판매 에이전트에게 전화하십시오



Jason Shin CA License #0L03106
213-392-0627(TTY: 711)
 월요일 ~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jshin2@humana.com
 Facebook.com/jshininfo



부자에 세금 부과해 복지 지원 비용 마련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민주당과 백악관 주도의 사회 복지 예산안이 당초 3조5,000억 달러에서 1조 8500억 달러로 대폭 줄었다. 하지만 이 예산안을 놓고 공화당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순탄치는 않다.

의회는 오는 12월 3일 이전까지 예산안 조율을 거쳐 극한 상황을 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양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라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사회 복지 예산안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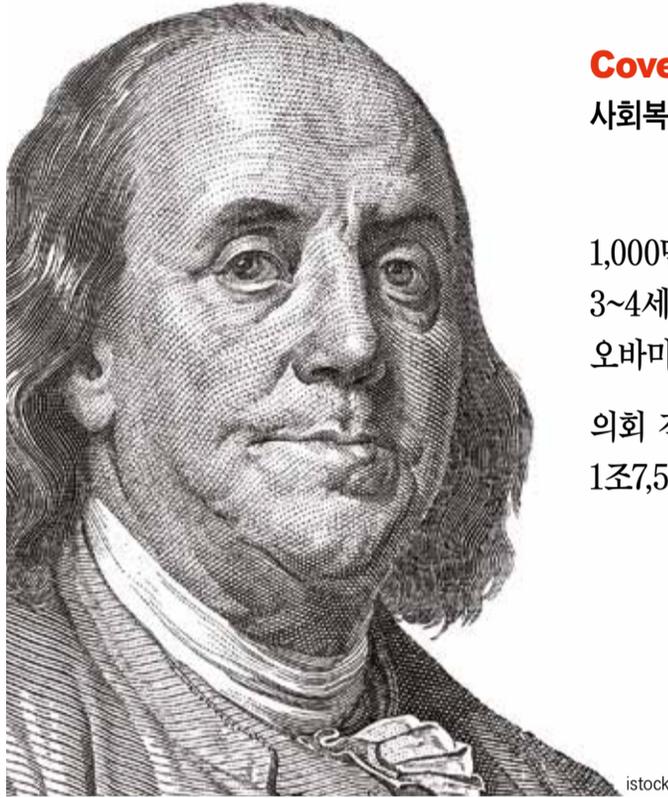
당초 3조5,000억의 사회복지 예산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에서도 부각되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 예산 규모를 대폭 낮춘 1조7,500억 달러의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 비용을 기업과 고소득자 세금 인상으로 조성될 2조 달러 재원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바이든은 이번 수정 제안에서 시니어들의 처방전 비용 인하 방안을 안타깝게도 제외시켰고 연방 차원의 첫 유급 가족 병가를 당초 12주에서 4주로 낮췄다. 특히 바이든은 최근 민주당이 제안했던 수퍼 부자세를 포함시키지 않았고 기업 세율 또는 부자 소득세율 인상도 하지 않는다.

바이든은 이번 제안에서 ▲배기가스가 적은 에너지원 사용에 세제 혜택 ▲3~4세 어린이의 공동 프리킨더가든 설립 ▲2022년까지 자녀 양육 택스 크레딧 연장 및 세금 보고 면제 소득 이하 수입자라도 자녀 택스 크레딧 영구 허용 ▲오바마케어 보험료 보조와 400만 명에게 메디케어(메디칼) 확대 ▲메디케어 보청기 보조 ▲100만 채 저렴한 주택 건설 ▲펠그랜트 550달러까지 확대 ▲대기업 순익의 최소 15% 세금 ▲외국에 있는 미국 기업 순익의 최소 15% 세금 등 다국적 기업의 이익 과세 ▲기업 자사 주식 매입에 1% 과세 ▲1,000만 달러 고소득자에 5% 추가세, 2,500만 달러 이상에 추가 3% 과세 ▲수퍼 부자의 비즈니스 손실 한계 설정 및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3.8% 메디케어 택스 부과 등을 제시했다.

사회 복지 예산안

민주당이 애초 내놓은 10년간에 걸친 미국 사회 복지 예산안은 '더 나



Cover story

사회복지 예산안 '더 나은 재건법'

1,000만 달러 이상 소득에 5%에 부가세
3~4세 어린이 공공 학교 설립
오바마케어 보조금 확대 계속 유지

의회 진통 속 바이든
1조7,500억 달러 축소안 내놔

은 재건법' (Build Back Better Act)으로 불린다. 하지만 이 예산안의 내용을 아는 일반인들은 많지 않다.

이 예산법의 골자는 건강 보험, 차일드 케어, 지구 온난화, 교육 및 세금이다. 지난 수십여 년간의 경제 성장 속에서도 중산 근로자층, 어린이와 의료 소외 계층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어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이번 '더 나은 재건법'에는 전 국민 건강보험 보조금 확대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현재 극빈자 지원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확대에 반대하는 12개 주의 주민들에게도 연방정부 차원의 혜택을 추가한다. 이를 토대로 2022년 무보험자 수를 700만 명 줄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바이든은 수정안에서 메디케이드 확대 폭을 400만 명으로 축소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코비드 긴급 구호법인 '미국구제법'을 통해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대폭 늘렸다. 그동안 연간 빈곤선 400% 이상인 가정은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지만(4인 가족 10만6,000달러) 수입의 8.5%만 보험료로 내도록 했다. 나머지는 정부가 보조한다.

특히 빈곤선 100~150% 수입 가정(4인 가족 2만6,500~3만9,500달러)은 보험료가 '0'에서 최고 수입의 4.14%까지만 부담하고 있다.

메디케어 보청기 제공

현재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커버 해주지 않는 안경, 보청기, 치과 혜택을 각각 2022년, 2023년, 2028년부터 커버해 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바이든은 수정안에서 치과와 안경을 제외 시켰다. 보청기만 커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런 혜택은 오리지널 메디케어가 아닌 파트 C 보험에서 추가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약값 인하

미국인들은 다른 경쟁국가 약값보다 2~3배 돈을 더 낸다. 의회는 메디케어 관리처에 약값 협상 권한을 부여한다. 현재 메디케어는 협상 권한이 없다. 하지만 바이든의 수정안에서는 제외됐다.

차일드 케어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 3월 코비드 구제법으로 시작된 '차일드 택스 크레딧' (자녀 세금 크레딧)을 영구화한다. 독신 가정 수입 11만2,500달러, 부부 15만 달러까지 가정의 자녀 1명당 최대 3,000달러(5세 이하 3,600달러) 크레딧을 제공한다. 영구화에 실패한다면 2023년부터 자녀 세금 크레딧은 2,000달러로 환원된다.

콜럼비아 대학의 분석에 따르면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코비드 구제법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원 정책으로 어린이 빈곤율을 13.6%에서 7.5%로 거의 절반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유급 가족 지원 및 병가

2023년 중반부터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중 12주의 유급 가족 및 병가를 의무화한다. 하지만 28일 발표된 바이든의 수정안에는 4주로 대폭 줄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아 끝까지 버텨낼지 의문이다.

연방법에는 현재 유급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만 일부 주나 직장에서 무급 병가를 두고 있지만 대상자는 전체 노동인구의 절반에 그친다. 그나마 고용주가 제공하는 유급 병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5명당 1명 정도다.

'재건법'은 최소 수입의 2/3, 월 최고 4,000달러까지 급여를 지불한다. 또 최소 임금 근로자는 수입의 80%를 받는다. 백악관은 향후 10년간 2,2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

유치원과 고등 교육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우선 가정 수입에 관계없이 2,0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3~4세 어린이들이 다니는 공동 유치원 프로그램을 만든다. 백악관은 500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며 주 정부의 경비 보조로 프로그램이 완전히 정착되면 평균 가정당 1만3,000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대부분 가정의 자녀 보육 비용을 수입의 7% 이하로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의 오랜 숙원이었던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 교육을 목표로 했지만 바이든은 수정안에서 이 부분도 제외시켰다.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무상 학자금 지원금 펠 그랜트를 최대한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을 약 1,500달러 올려 지금의 최대 6,495달러를 8,000달러 가까이 인상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바이든은 이를 550달러로 줄였다.

과거 펠 그랜트는 4년제 공립대학 비용의 75% 이상 커버해 줬지만 지난 50년 동안 30% 이하로 떨어졌다. 이를 부분적이라도 되살리자는 것이다.

세금

의회의 가장 큰 고민은 이런 지출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이다. 하지만 대답은 간단하다. 부자들의 증세를 통한 자금 마련이다.

당초 개인 연 소득 40만 달러, 부부 연 45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최대 소득세율을 기존의 37%에서 39.5%로 올리고 5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은 3% 부가세를 추가한다고 되어 있지만 바이든은 이 부분을 제외했다.

다만 개인 연 소득 1,000만 달러 이상은 5%의 부가세를 내고 2,500만 달러 이상은 3%의 추가 부가세를 내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1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내는 대기업에 대해 기업 이익의 최소 15%를 과세한다. 또 주식 매수에 1%에 세금을 부과하고 미국 기업의 해외 이익의 최소 세금을 15%로 한다.

지난달 중순 공개된 '미국 패밀리 설문'에 따르면 '차일드 택스 크레딧' 비용을 어떻게 조달해야 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9%는 부자 과세를 통한 방법을 선택했고 19%만이 다른 복지 프로그램 삭감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재건법' 지출 예산안이 축소된다고 해도 부자 증세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광고 (562)538-8581
contact@usmetronews.com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함께하시면 든든하십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선택



큰 만큼
큰 혜택

한인 최대
의료진

초고속
리퍼

실력이면
실력

연례 메디케어 등록 및
변경 가입 기간

AEP

일년 중 한번 뿐인 메디케어 보험 가입 및 변경 기간, 놓치지 마세요!

10월 15일 부터 **12월 7일** 까지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TEL 213.389.0077 • 800.611.9862

메디케어 HMO 선택 단연 서울 메디칼

시니어 건강관리는 메디칼 그룹이 좌우

“시니어 건강 관리는 메디컬 그룹이 좌우합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의 차민영 대표가 늘 강조하는 말이다. 보험회사가 아니라 메디컬 그룹이 환자에 대한 모든 건강관리 진료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마음에 드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소속돼 있는 메디컬 그룹이 시원치 않다면 환자들은 필요한 검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스트레스만 쌓일 수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우선 규모가 크고 전문의 진료를 지체없이 승인해주는, 최고 평점의 메디컬 그룹을 찾아야 한다. 최고점인 5 스타 등급을 유지하는 서울 메디컬이 바로 그런 그룹이다.

메디케어에 가입한 시니어들은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연중 한 차례만 메디케어 보험사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신중을 기해 고르다가 맨 마지막에 신청하는 보험이 내년 1년간 건강을 책임지는 보험이다. 이 기간을 AEP(연례 가입 기간)이라고 부른다.

물론 빈곤층에 속해 메디칼(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거나 만성 질환, 이사, 퇴직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 가입 기간(SEP)이 인정돼 보험의 연중 가입이나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 메디케어 가입자는 이 기간을 넘기면 1년을 답답하게 참고 기다려야 한다.

일단 보험사를 결정하고 나면 주치의와 메디컬 그룹을 선택해야 한다. 이때 정하는 메디컬 그룹과 주치

의가 환자의 건강을 지켜줄 든든한 ‘건강 지킴이’가 된다.

메디케어란

대부분의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또는 5년 연속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자에게 제공되는 건강 보험이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근로 기록이 40점 이상 확보됐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40점을 획득하지 못했다고 해도 일정 돈을 내고 가입할 수 있다. 일정 기간 내 가입하지 않으면 평생 벌금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65세가 되지 않았어도 장애인 연금을 24개월 이상 받고 있거나 영구신장 손상, 루게릭병을 앓는 경우도 해당된다.

정부는 각각 파트 A와 파트 B로 불리는 병원과 의사 진료만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정부에서 원래 제공하는 의료 혜택이라고 해서 ‘오리지널 메디케어’라고 부른다. 하지만 자기 부담금이 20%나 되고 처방전 약 플랜은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정부 극빈자 보조를 받지 않는다면 경비 부담이 매우 크다.

그래서 정부에서 일반 보험회사에 의뢰해 탄생시킨 것이 요즘 시니어들의 최고 선택지로 꼽히는 메디케어 파트 C다. 파트 C는 앞서 말한 대로 휴매나, 센트럴 헬스 등 일반 보험회사에서 판매한다. 우리에게 메디케어 HMO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이 메디케어 HMO는 보험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보험회사,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어 환자의 건강 관리

를 책임지는 메디컬 그룹이 큰 골격을 이룬다. 메디컬 그룹은 주치의와 전문의, 유관 병원이 포함된 의료 네트워크이다. 환자의 건강은 이 네트워크 내 의료진들이 담당한다. 의료진 수가 적고 층이 얇은 메디컬 그룹을 선택하면 환자의 고통만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한인 사회 의사의 90%가 속해 있고 리퍼럴이 빠른 서울 메디컬 그룹이 최고의 선택지로 부상하는 이유다.

메디케어 파트 C란

메디케어 파트 C는 주치의가 환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모니터하는 ‘건강 지킴이’ 제도다.

차민영 서울 메디컬 그룹 회장은 “정부가 제공하는 파트 A와 파트 B는 기본이고 개인이 구입해야 하는 처방전 파트 D, 그리고 자기 부담금 20%까지 대부분 커버해주는 종합 ‘원스톱’ 메디케어 보험”이라고 소개했다.

고객이 많은 LA와 오렌지카운티는 보험금이 거의 없다. 정부에서 운



든든한 한인사회 ‘건강 지킴이’ 서울 메디컬 그룹의 차민영 회장.

영하는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주지 않는 치과, 안경, 보청기, 침술, 교통편, 헬스클럽 이용 등등 다양한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크게 HMO와 PPO로 운영된다. 주치의가 소속돼 있는 메디컬 그룹(네트워크) 내에서

모든 진료와 치료, 수술이 가능하다. 만약 네트워크를 벗어난 지역에서 진료는 받는다면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의사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메디컬 그룹의 규모와 재정 상태가 무엇보다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서울 메디컬 그룹 이사진



SMG BOARD MEMBERS

서울 메디컬 그룹 주치의의

LA LOS ANGELES SMG Primary Care Physicians

 한경모 Kyung Mo Han	 차민영 Min Y Cha	 조지 인 George In	 백상현 Sang Hyun Baik	 이영직 Young-jik Lee	 강수웅 oo Woong Kang	 이선우 Sonwoo Lee	 정만길 James J. Jung	 임영빈 Justin Rheem	 손향은 Hyang Eun Sohn	 로리 안 Lauri An					
 신동원 Dong Won Shin	 송명재 Mark M. Song	 Carol Richardson-te	 Francis Te	 윤은주 Eun Joo Yoon	 스티브 박 Steve Park	 강두만 Deno Kang	 Gemelia Aguilera	 Edgar Banez	 Anna Chickey	 Marcel Filart	 Jose-mari Elacion	 Renato Mungcal	 Alberto Natividad	 Lamberto Olaes	 Guadalupe Pedrano
 안우성 Woo Sung Ahn	 알버트 장 Albert Chang	 최원배 Wonbae Choe	 리처드 한 Richard S. Han	 홍석은 Naomi Hong	 김진세 Chin Se Kim	 김대중 Dae-choong Kim	 이재훈 Jae H Lee	 이광혁 John K, Lee	 이용호 Yong Ho Lee	 오문목 Moon M. Oh	 방재훈 Jason J. Pang	 박재만 Jae Man Park	 이효구 Joseph Yi	 석태영 Larry T. Suk	

서울 메디컬 그룹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빠른 리퍼럴 5스타의 서비스

서울 메디컬 그룹은 남가주를 비롯해 샌프란시스코, 뉴욕, 시애틀, 하와이, 애틀랜타 등 미국 7개 주 10개 도시를 커버하는 한인사회 초대형 메디컬 그룹이다. 주치의 만도 400명, 전문의 4,000명 등 풍부하고 다양한 의사 네트워크를 가진 완벽한 의료 그룹이다.

전국 규모의 대형 메디케어 보험 회사인 웰케어로부터 4년 연속 최우수 메디컬 그룹으로 뽑혔고(5 스타), 올해는 휴메나로부터 역시 5 스타의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룹 협력 병원으로는 할리웃 장로병원(차병원), 라팔마 병원, 애나하임 리저널 병원, 가든 그로브 병원 등이다. 차민영 회장은 “커뮤니티 병원에서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 환자 보험을 확인해야 하겠지만 시더스 사이나이, UCLA, USC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시켜 치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룹 협력 병원으로는 할리웃 장로병원(차병원), 라팔마 병원, 애나하임 리저널 병원, 가든 그로브 병원 등이다. 차민영 회장은 “커뮤니티 병원에서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 환자 보험을 확인해야 하겠지만 시더스 사이나이, UCLA, USC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시켜 치료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휴메나 보험사로부터 5 스타 최우수 메디컬 그룹으로 선정됐다. 서울 메디컬 그룹 재무담당 이사(왼쪽 두 번째) 한경모 내과의.

서울 메디컬 그룹으로 옮기려면

보험사 또는 에이전트 통해 연중 변경 가능

우선 서울 메디컬 그룹 소속 주치의의 선택한다. 그리고 보험회사나 보험 에이전트를 통해 연중 가입, 변경할 수 있다.

보험사와는 달리 주치의는 연중 언제라도 선택해 변경할 수 있다. 주치의의 선택할 때 꼭 메디컬 그룹은 서울 메디컬 그룹을 선택한

다. 여러 메디컬 그룹과 일하는 주치의들이 있다. 꼭 서울 메디컬 그룹을 선택하면 된다.

선택하기

① 서울 메디컬 그룹에서 주치의의 선택한다.

② 보험 에이전트를 만나서 주치의와 서울 메디컬 그룹으로 해 달라고 신청한다. 또는 서울 메디컬 그룹 고객 지원 센터로 전화한다.

이미 주치의가 있다면

① 주치의가 현재 서울 메디컬 그룹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한다.
② 보험사에 전화해 현재 주치의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서울 메디컬 그룹으로만 바꾼다.

③ 현재 주치의가 서울 메디컬 그룹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서울 메디컬 그룹에 가입한 다른 주치의로 변경해야 한다. 보험 에이전트와 상의해 서울 메디컬 그룹 소속 주치의의 선택해 변경한다.

메디케어 가입자가 아닌 64세 미만의 보험 가입자라면

① 본인 의료 보험이 서울 메디컬 그룹과 계약 관계 인지 확인하고 전화를 통해 서울 메디컬 그룹으로 바꾸면 된다.

② 본인 보험이 서울 메디컬 그룹과 계약 관계인지 알고 싶다면 서울 메디컬 그룹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③ 직장 보험이라면 보험을 담당하는 관리자에게 연락해 보험 옵션과 변경 가능한 날짜를 확인해 본다.

서울 메디컬 그룹 멤버 서비스 라인으로 전화하면 예약, 보험 확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LA 지역 (213)389-0077
-OC 지역 (800)611-9862

서울 메디컬 그룹, 이익만 추구하지 않는다

서울 메디컬 그룹은 남가주 보험 환자 수만도 6만 명이 넘는다. 또 메디케어 환자도 3만7,000명에 달한다. 다시 말해 충분한 재정으로 환자들의 진료와 검사, 수술이 지체 없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규모가 작거나 이익을 주로 추구하는 메디컬 그룹은 전문의 진료나 수술 승인을 내주는 ‘리퍼럴’에 인색하다. 환자의 의료비 지출은 보험

회사가 아니라 메디컬 그룹에서 책임진다. 따라서 메디컬 그룹에서 리퍼럴을 자주 해주면 그룹의 수입이 줄어들거나 작은 그룹들은 문을 닫아야 한다.

차민영 서울 메디컬 그룹 회장은 “우리는 환자 중심의 메디컬 그룹이다. 전문의 리퍼럴의 70%는 자동 승인된다. 긴급 수술도 10분 만에 승인을 해준다”라고 소개했다.



 안승록 Seung R An	 조아라 Ahra Cho	 잔 음 John Ehum	 브랜트 한 Brant Han	 허남형 Brian Huh	 정희수 Hee Soo Jeong	 강훈구 Hun Ku Kang	 김민성 Calvin Kim	 다이아나 김 Diana Maria Kim	 김도영 Doeyoung Kim	 김일영 Il Young Kim	 카렌 김 Karen Kim	 김승현 Seung Hyun Kim	 빅터 공 Victor Kong	 이용태 Yong Tai Lee	 임대순 Dae Soon Rheem
 Earla Quisido	 Ricardo Roman	 George Suyat	 Teresita Tan	 Santos Uy	 Reynaldo Zapata	 ORANGE COUNTY	 강수웅 Soo Woong Kang	 김홍식 Hong Sik Kim	 폴 장 Paul S, Chang	 하태선 Robert T. Ha	 잔 김 John Kim	 홍훈기 Hoon Gi Hong	 김방선 Bang Sun Kim	 송채원 Chaewon Song	 안규동 Kyu Dong Ahn
 성동진 Dongjin Sung	 SAN FERNANDO VALLEY	 박성수 Richard Park	 김학준 Philip Kim	 리사 김 Lisa Kim	 장국일 Kook Il Chang	 최정원 Cheong W. Choi	 임 덕 Duck Lim	 유경수 Kyung Soo Yoo	 SAN GABRIEL VALLEY	 백성렬 Jason S. Paek	 변상준 Sangjun Byeon	 오희용 Hee Yong Oh	 2017·2018·2019·2020년 최우수 별 5개 서울 메디컬 그룹		



유서 없는 은행구좌 소액이면 간단히 상속 가능

유족의 신분증, 사망 증명서, 진술서 제출
캘리포니아는 재산 16만6,625달러 이하여야
사전 POA작성해 수혜자 지정 바람직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했다면 은행 잔금이나 주식, 보관 창고 물건 등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

금액이 적다면 사망 신고를 한 유족이 자신의 신분증과 사망 증명서, 진술서(affidavit)만 제출하면 쉽게 구좌를 폐쇄하고 잔금을 인출할 수 있다. 은행뿐만 아니다. 주식이나 머니 마켓, 보관 창고 물건 등도 간단히 상속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동산과 개인 재산, 수혜자가 불분명한 생명보험 또는 은퇴 구좌 등과 같은 재산 합계가 16만6,625달러 이하라면 이런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법원 프로베이트(공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이 상속될 수 있다. 하지만 집이나 땅은 공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해도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는 상속이 되지 않고 법원 판사의 서명을 받아야 상속된다. 물론 공증 법원 절차보다는 훨씬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재산 가치를 환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 재산들이 있다.

자동차, 캘리포니아 이외 지역의 부동산, 리빙 트러스트에 포함된 부동산, 조인트 테넌시(공동 재산)에 포함된 재산, 생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재산, 수혜자가 지정돼 프로베이트가 적용되지 않는 생명보험 은퇴 구좌 등, 사망 후 받은 5,000달러 이하의 급여 및 기타 보상금, 고인의 부채 또는 모기지 재산 합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재산 목록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 가치가 16만6,250달러 이하라

면 은행 구좌나 주식 등은 간단하게 상속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할 것을 권한다.

캘리포니아 민사법원 웹사이트에 공지된 '쉽게 재산을 상속하는 절차' (Simplified Procedures to Transfer an Estate) 일문일답

-공증 면제 금액 16만6,250달러 이하 가치 평가할 때 개인의 부채를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고인의 부채를 제외하고 계산할 수 없다.

-프로베이트 법원에 넘어간 유산은 이 상속 절차로 처리할 수 없다.

-누구라도 이런 간단한 절차로 유산을 받을 수 있다

고인의 재산을 물려받을 법적 권리가 있다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유서에 수혜자로 지정되거나 유서가 없는 경우 고인의 상속인이어야 한다. 하지만 보호자 또는 유산의 후견인도 가능하다.

-재산을 내 이름으로 바꾸려면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나 회사에 진술서(affidavit)를 제출하면 된다.

-이름 바꿀 재산이 여러 개라면 한 진술서에 모든 재산 목록을 작성하거나 각 재산의 진술서를 따로 작성해도 된다.

-진술서는 어디에서 구하나 많은 은행 또는 기타 회사에서 자체 진술서를 가지고 있다. 진술서를 비치하지 않고 있다면

법원에서 제공하는 진술서를 참고하면 된다.

-물려받을 사람들이 여러 명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진술서에 서명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해당 재산을 물려주는 데 동의 한다는 서명이다.

-공증이 필요한가 필요 없다. 하지만 많은 은행에서 공증을 요구하므로 미리 공증을 받는 것이 좋다.

-진술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가 있다. 사망 증명서, 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은행 통장, 보관 창고 영수증, 주식 증명서 등



생명보험, 은퇴 플랜 등은 고인의 사망 후 공증 법원으로 넘어가지 않고도 수혜자에게 유산된다.

다만 수혜자가 이미 사망했거나 소재 불명 등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생명보험사 등에서 수표를 공증 법원으로 보내게 되므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분배된다.

따라서 이런 어카운트는 수혜자를 항상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해 두는 것이 좋다.

은행 구좌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추가해 급한 사정이 있거나 어카운트 관리를 대신 부탁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은행 구좌 이름에 딸을 추가해 수표를 쓰거나 관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유주가 죽은 후 가족 간의 분쟁의 소지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경우라면 구좌 사용처를 미리 서류로 남겨놓는 방법도 좋다.

또 이미 생전에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은행 구좌의 이름이 트러스트로 되어 있다면 법정 공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트러스트는 공증을 요구하지 않음으로 은행 구좌 역시 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하지만 유족들이 트러스트로 된 은행 구좌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은행 구좌는 트러스트 재산이므로 서류에 적힌 수혜자에게 넘겨진다. 존김 기자

등), 운전면허 또는 여권 등 신분증명서, 캘리포니아 모든 부동산 목록 및 가치.

-재산 이체에 필요한 시간은 고인의 사망 후 40일이 지나야 한다.

은행 구좌 쉽게 넘겨주려면

은행 구좌 소유주 이름이 한 사람으로 돼 있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공동 소유 구좌라면 남은 쪽이 은행 구좌 소유권을 모두 갖는다. 다시 말해 구좌의 돈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 은행에 죽은 후 누가 은행 구좌를 가져갈 것인가를 서류로 남겨두는 것이다. 이를 'POA' (payable-on-death) 또는 'TOA' (transfer-on-death)라고 한다.

이를 통해 수혜자를 정해 놓으면 유서가 없어도 자동 잔금은 수혜자에게로 넘어간다.

참고로 수혜자가 명확히 명시된



은퇴 후 세율 걱정된다면 전통 IRA를 로스로

72세 최소 인출금 규정 없고
찾아도 세금 없어 세율과 무관
메디케어 보험료 추가금 줄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전통 IRA에서 로스 로의 전환을 궁급해한다. 세금을 낸 후 수입으로 적립하는 로스 IRA는 전통 IRA와 달리 평생 찾아 쓰지 않아도 되고 구좌내 수익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따라서 은퇴 후 수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라들에게는 이 방법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개인 은퇴 구좌(IRA)에 많은 돈을 넣어 둔 사람들이 많다. 열심히 벌어서 은퇴 후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통 IRA는 세금을 내지 않고 모은 돈이므로 찾아 쓸 때는 그해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또 72세부터는 원치 않아도 법에서 정한 만큼의 돈을 찾아야 한다. 찾지 않고 버티면 그해 받아야 될 돈의 50%는 정부가 가져간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생긴다. 전통 IRA에 많은 돈을 적립해 놓고 있다가 72세부터 돈을 찾기 시작한다면 소셜 연금등까지 합해 수입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경우 소득세율도 높아져 세금을 많이 내는 동시에 수입에 따라 보험료가 정해지는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와 파트 D 보험료도 남들보다 더 많이 내게 된다.

참고로 개인 8만8,000달러 부부 17만6,000달러 이하의 수입자는 표준 파트 B 보험료는 148.50달러(2021년)이지만 그 이상의 수입자는 5등급으로 나뉘어 최고 504.90달러(개인 50만 달러 이상, 부부 75만 달러)까지 내야 한다.

또 처방전 플랜인 파트 D 보험료도 과태료가 붙어 최고 77.10달러를 더 낸다. 이를 파트 D 수입 관련 보험료 조정금(Income-Related Monthly Premium Adjustment)이라고 부른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낸 후 수입으로 적립하는 로스 IRA로 자금을 옮기고 있다. 이를 로스 IRA 전환(컨버전 conversion)이라고 부른다.

2020년 미국 4,800만 가정이 IRA 구좌를 가지고 있다



로스 IRA 적립금은 72세가 되더라도 찾지 않아도 된다. 이미 세금을 낸 수입이므로 정부에서 이를 강제로 찾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퇴 후 수입이 올라 세율과 메디케어 보험료 상승의 우려도 사라진다.

하지만 전통 IRA를 로스 IRA로 자금을 전환하면 세금을 내고 옮겨야 한다.

따라서 전통 IRA에 있는 돈을 로스로 전환하려면 조금씩 또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시기를 맞춰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IRA 기초

전통 IRA나 401(k)는 세금을 내기 전 수입(세전 수입)으로 적립한다.

구좌에서 적립금이 세금 없이 불어나다가 59.5세 이후 찾아 쓰기 시작할 때 세금을 낸다. 세금은 그해 개인 소득 세율에 따라 낸다. 반면 로스 IRA는 세금을 내고 난 수입(세 후 수입)으로 적립하므로 찾아 쓸 때 세금을 내지 않는다.

만약 은퇴 후 전통 IRA에서 돈을 찾아 쓸 때 내는 세금보다 전환할 때 내는 세금이 더 많다면 일찍 전환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풀타임 직업을 그만두고 은퇴한 직후부터 RMD를 받기 전이 가장 좋은 전환 시기가 될 수 있다. 은퇴했으므로 과세 수입도 크게 줄어들 것이고 72세 RMD도 받기 전이므로 소득세율도 낮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때만 좋은 전환 시기는 아니다.

소액씩 꾸준히 전환

현재 수입이 많아 소득세율이 높다면 좋은 시기는 아니다. 돈을 많이 옮긴다면 수입이 많이 늘어나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다.

보통 큰돈을 옮긴다고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수년 동안 소액을 옮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소액을 옮기면 높은 세율에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40~50대 로스 전환을

권하고 있다. 이중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요즘의 세율은 역사적으로 볼 때 낮은 수준이다. 다시 말해 전환에 좋은 시기라는 말이다. 둘째는 죽기 전까지 수십여 년 동안 로스 구좌에서 세금 없이 돈이 불어난다는 점이다. 로스 구좌 투자 수익은 돈을 찾아 쓸 때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장기적 계획

로스 전환으로 고소득 세율이 적용됐다고 생각해 보자. 그렇다고 엄청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내다보면 훨씬 이득이다.

수입이 많아 항상 고세율이 적용된다면 은퇴 후에서 계속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은퇴 후 고세율로 다양한 손해를 보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바뀌는 것이 좋다.

세금의 다양성 확보

한곳에 집중투자보다는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는

정도는 다 알고 있다. 세금도 마찬가지다.

모든 은퇴 자금을 한 세금 보따리에 모두 넣어 두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로스 구좌로 분산 투자해 놓는다면 미래의 세율 상승에 대처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광고 (562)538-8581
contact@usmetronews.com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로스 전환이 좋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전통 IRA에서 돈을 꺼내 로스 구좌로 이체시키면 세금을 내야 한다. 구태여 당장 세금까지 내 가면서 전통에서 로스로 바꿀 필요는 없다.

충분한 은퇴 자금과 은퇴후 높은 소득을 계속 유지한다면 모를까 일반인들의 경우는 별로 효과적인 방법은 아닐 것이다.

존김기자
contact@usmetronews.com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가'

폴선 메디케어



폴선

CA Lic.#OF44756

자넷(영희) 전

CA Lic.#OH49868

폴선이 지난 10여 년간 엘에이, 오렌지,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벤츄라 카운티 등에 거주하시는 약 3,700명 시니어분들을 도와드린 경험으로(더 많은 분들을 도와 드리고자) 확장 이전하였습니다.

※모든 메디케어 상담은 무료입니다.

Google에서 **폴선 보험** 을 검색하세요.

www.paulsunmedicare.com

- ✓ 처음에 메디케어를 받으실 분이나,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
- ✓ **파트 B 보험료를 환불 받으시겠습니까?**
- ✓ 직장 보험에서 나오신 분, 거주지가 바뀐 분, 적합한 플랜을 받으시겠습니까?
- ✓ 당뇨, 고혈압 질환을 위한 SNP 플랜(특별 프로그램)
- ✓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갖고 계신 분 더 많은 혜택 플랜
- ✓ 치과 치료 도움을 받으시겠습니까?
- ✓ 한방 침술을 무제한으로 받으시겠습니까?
- ✓ 헬스클럽 회원권, 골프비 보조를 받으시겠습니까?

※중앙일보 메디케어 건강보험 칼럼니스트

무료상담
 10.15.2021~12.07.2021
 AEP기간을 잘 활용하세요

폴선보험 (213)503-6897 / (323)767-6872

올림픽&알바라도 (구)월셔은행 5층 510호
 2140 W. Olympic Blvd. #510, LA, CA 90006

폴선 시니어 건강보험은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함께합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4년 연속 환자 만족도와 의료진 진료 수준
 최고 5성급 메디칼 그룹

www.seoulmedicalgroup.com



“끝났다고 끝난것은 아니다”

돌파감염 주의해야 거리두기·마스크 착용 엄수 백신 맞았어도 열나면 코비드 19 테스트 받아야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코비드 19 돌파 감염으로 지난 17일 사망했다. 그의 나이 84세의 고령에 다발성 골수종 치료로 면역체계가 손상된 상태였다. 하지만 미국의 완전 백신 접종 비율이 6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코비드 19, 특히 감염력이 두 배나 강한 델타 변이로 인한 돌파 감염은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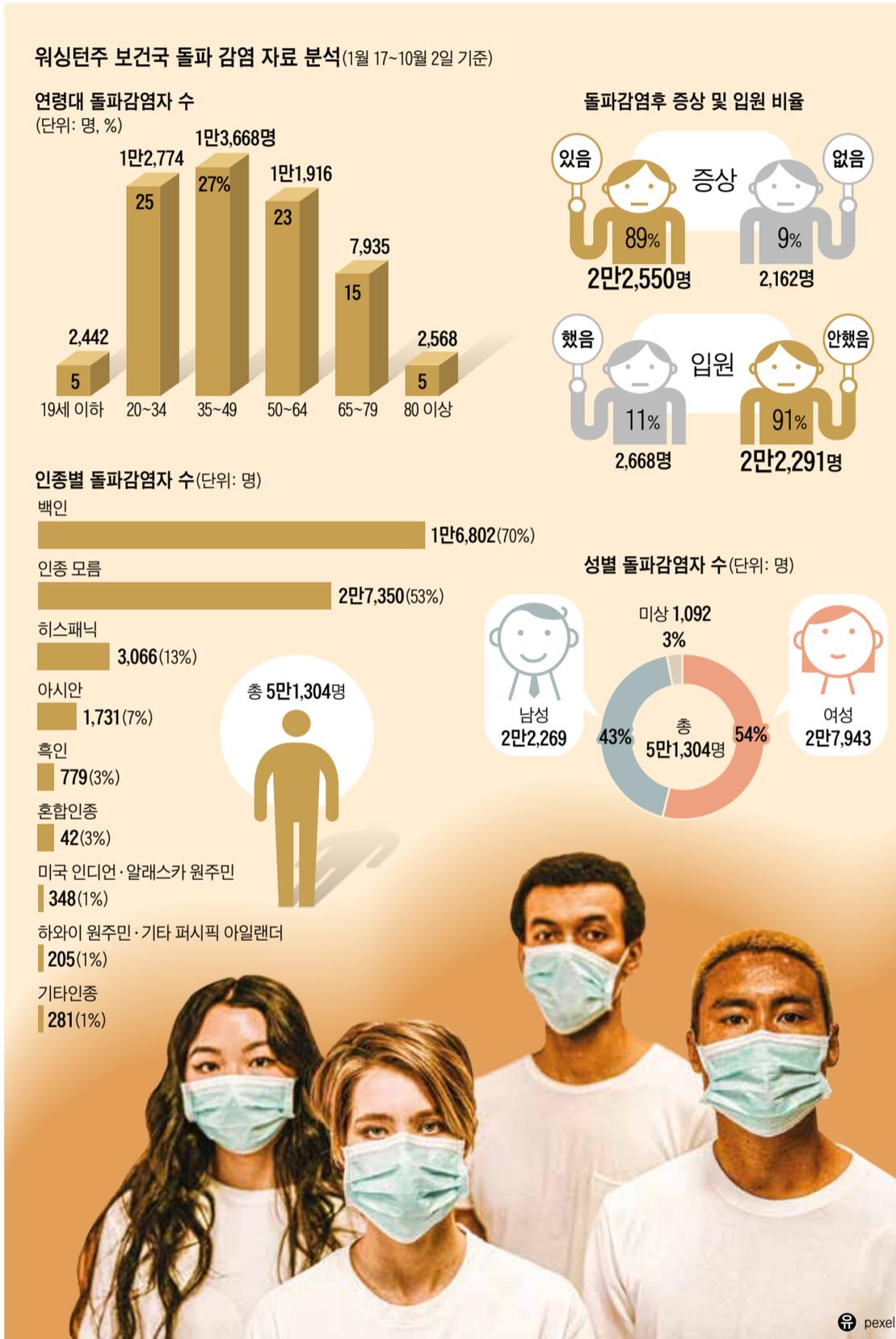
워싱턴주 보건국이 400만 명의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 연구에서 지난 1월 17~8월 21일 5,000명당 1명꼴로 돌파 감염이 발생했다. 하지만 10월 2일까지 조사에서는 100명당 1명으로 많이 늘어났다. 돌파 감염이 보편화 되고 있다는 말이다.

특히 남성(43%)보다 여성(54%)의 돌파 감염이 더 많았다. 특이한 점은 워싱턴주의 여성 백신 접종률이 남성보다 앞서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돌파 감염에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돌파 감염의 증상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과 유사하다. 하지만 경미한 증상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전혀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

만약 완전 접종을 마쳤는데 열이 나고 아픈 증상, 또는 평소와 다른 어떤 증상이 온다면 코비드 19 테스트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알러지 증상이 있는데 보통 때 보다 더 심하거나 두통 또는 경미한 기침을 한다면 반드시 테스트를 받아보라고 전문가들은 권한다. 특히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백신 접종 후 돌파 감염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자가 격리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거리 두기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 손을 자주 씻어 타인에게 전



다행히 LA시 등 일부 도시에서는 백신 접종 증명을 제시해야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시 조례를 만들어 방역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뉴욕은 미성년자를 제외한 성인은 백신 접종 증명을 해야 실내 식사가 가능하다. 또 LA도 11월 4일부터 뉴욕과 동일한 정책을 시작했다.

만약 실내에서 식사를 한다면 환기가 잘되는, 창문이 열려 있는 쪽이나 문 쪽으로 앉는 것이 좋다.

또 사람이 많이 몰리는 술집은 가급적 피한다.

소규모 모임 주의

전문가들은 소규모 모임에서 감염이 많이 되는 것 같다고 우려한다. 2020년 한 연구 보고서는 감염이 많은 지역에서 생일잔치에 참석했다가 감염된 케이스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CDC는 소규모 파티는 가능하면 실외에서 갖고 전염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실내 모임에서도 마스크를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최근 다시 코비드 발병 케이스가 감소세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아직 위험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알렉사 미시스 말척 가정 주치의는 “학교나 오피스 빌딩보다는 대부분 친구들과 노는 자유시간에 코비드에 걸린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실외

실외가 실내 보다 위험성이 덜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안전하지는 않다. 실외에서 소규모 인원들이 물리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것과 밀집된 실외 행사에서 장시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말척 가정 주치의는 사람이 많은 곳은 거리 두기가 매우 힘들다면서 “누가 백신을 맞지 않았는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실제 야외 음악 페스티벌에서 코비드 19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도 한다. 자넷김기자

염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돌파 감염 위험군

모든 백신 접종자에게 돌파 감염이 가능하지만 건강 상의 문제 또는 장기 이식, HIV, 암, 화학요법 등의 치료

를 받아 면역 체계가 약해진 사람은 돌파 감염이 더 높을 수 있다. CDC는 면역체계가 약해진 사람들에게 2차 접종 이후 28일 지난 후 3차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면역력을 한층 배가시켜준다.

실내 식당 및 술집 이용 시 주의

이미 식당이나 술집에서 코비드 19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다소 방역 수칙이 완화해졌지만 주의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클린턴 패혈증상 매년 27만 미국인 목숨 앓아가

피부 감염, 요로감염, 폐렴 등 박테리아가 원인

조기 치료 놓치면 혈액에 들어가 치명적

시니어는 물 많이 마시고 전립선 관리 필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난달 중순 UC 어바인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다. 올해 75세인 클린턴의 병명은 요로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상이다. 요로를 통한 감염이 피속으로 번지는 증상을 말하며 심하면 목숨까지 앓아가는 위험한 병증이다.

패혈증은 시니어 환자들에게 가장 흔하게 발견된다고 의사들은 전했다. 클린턴 이외에도 아버지 조지 부스도 2018년 바바라 여사의 장례식이 끝난 후 패혈증 증상으로 하루 동안 입원했었다.

세계 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1,100만 명이 패혈증으로 목숨을 잃는다. 또 병원에서의 가장 일반적인 사망 원인이기도 하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매년 27만 명의 미국인들이 패혈증으로 사망한다고 밝혔다. 패혈증으로 또는 패혈증을 유발하는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패혈증 환자 중 87%는 외부에서 감염돼 병원으로 실려 오는 케이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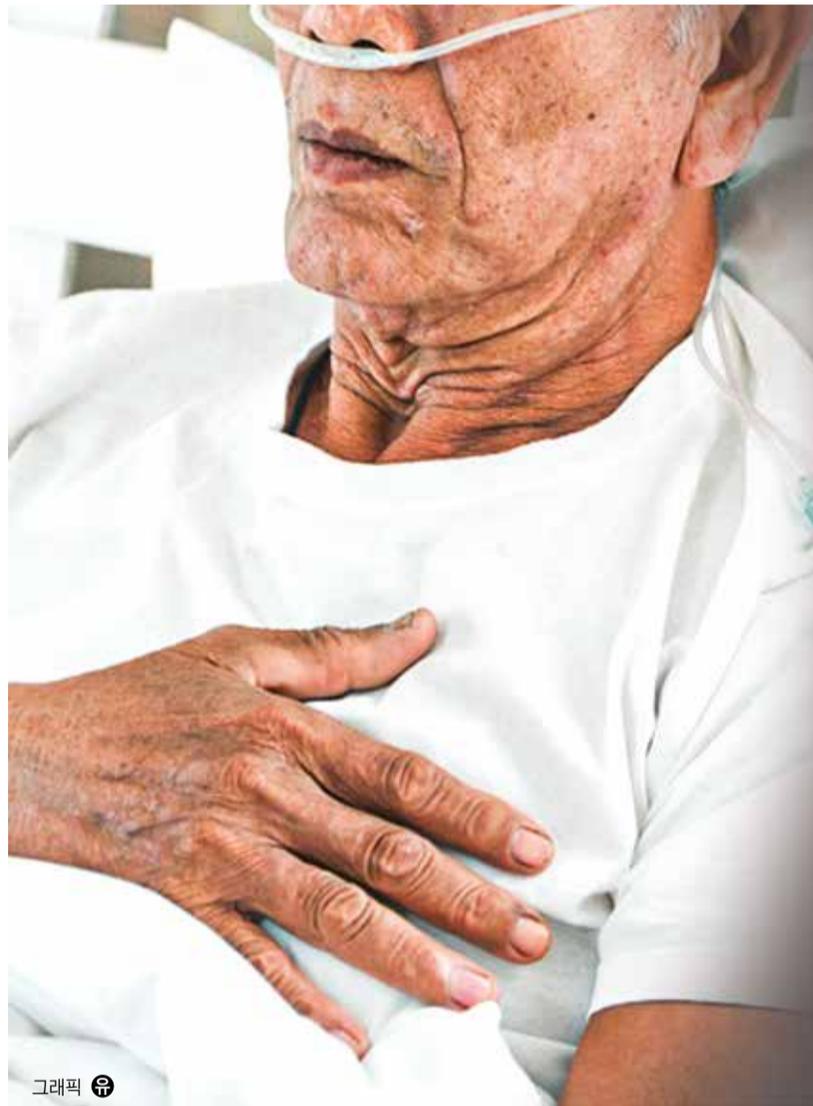
CDC에 따르면 패혈증은 보통 폐, 요로, 피부 또는 소화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초기 증상이 나타날 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조직이 괴사되고 장기 기능이 마비돼 죽음에 이른다.

패혈증이란

폐렴, 심각한 피부 감염, 소화기 감염 또는 요로감염증과 같은 박테리아 감염이 원인이다.

폐렴, 요로, 골수염, 맹장염, 복막염, 뇌막염, 심장내막염, 병원 내 감염, 화상 및 부상 등이 주요 원인이며 원인 불명인 경우도 있다.

박테리아균이 혈액을 통해 퍼지면 고열, 오한, 혈압 저하, 가쁜 호흡, 심장 박동 수 증가, 혼돈과 방향감각



그래픽 유

패혈증 증상

- 어패류를 날것으로 섭취
- 간질환·당뇨병 환자
- 외상

38°C 이상 고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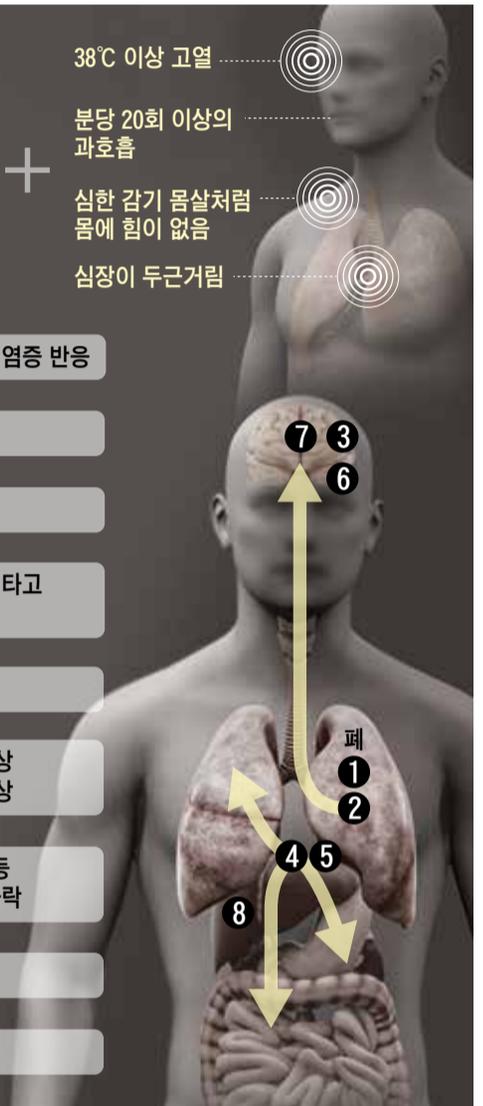
분당 20회 이상의 과호흡

심한 감기 몸살처럼 몸에 힘이 없음

심장이 두근거림

패혈증 진행 과정

- 1 폐에 균이 침투해서 염증 반응
- 2 염증 물질 과다 생성
- 3 고열
- 4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퍼져 전신혈관 확장
- 5 혈압 하락
- 6 맥박 1분당 90회 이상 호흡 1분당 20회 이상
- 7 심장·폐·뇌·신장 등 온몸의 장기 기능 하락
- 8 장기 부전
- 9 사망



상실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휴스턴 감리교 병원의 파이살 마수드 응급의학과장은 “시니어들이 무기력해지고 혼란스럽고 더 피곤함을 느낀다면 고열을 동반하지 않더라도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패혈증은 몸속 세포들이 감염균과 과도하게 싸우면서 결국 신장, 폐, 심장, 또는 뇌까지 손상시킬 수 있다고 뉴욕 리눅스 힐 병원의 응급 담당 의사는 설명했다.

그는 “패혈증을 즉시 발견해 공격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면서 “정맥 주사액 투여와 정맥 항생제 치료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입원 환자는 패혈 쇼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혈중 산소 농도를 유지해 주기 위한 바이탈 사인의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다. 혈압이 지나치게 낮으면 체내 장기에 골고루 혈액 공급이 어렵고 정상 기능도 어렵게 된다.

패혈증이 나타나는 환자는 정상 산소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쁜 호흡을 쉬는 경향이 많으며 경우에 따라 산소 호흡기를 착용해야 할 때도 있다.

클린턴의 요로감염증(UTI)이란

메요 클리닉에 따르면 요로감염증 즉, UTI는 신장, 자궁, 방광, 요도 등 비뇨기 계통 감염을 말한다. 주로 박테리아가 요도를 통해 요로에 들어가 방광에서 급속히 번식할 때 발생한다. 대부분의 감염은 방광 또는 요도 등 아래쪽 요로에서 일어난다.

휴스턴 마수드 응급의학과장은 “UTI는 패혈증의 일반적인 원인 중 하나”라면서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메요 클리닉은 증상에 대해 소변이 금방이라고 나올 것 같은데도 매우 소량만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하지만 증상은 어디에 감염됐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신장에 감염됐다면 허리 통증 또는 옆구리 통증과 고열, 오한, 구토, 메스꺼움 등을 느낄 수 있다.

방광 감염이라면 골반 압박감, 하복부 불쾌감, 통증을 동반한 소변, 혈뇨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요도 감염인 경우에는 소변볼 때 타는 듯한 통증이나 분비물이 나올 수 있다.

마수드 과장은 “시니어들 뿐 아니라 이런 증상을 느끼는 환자들은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존스 토리스 NBC 방송 의학전문 기자는 “희귀한 상황은 아니다. 요로 감염으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체가 이를 견디지 못해 요로를 통해 또는 방광과 신장에서 혈액으로 박테리아가 침입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방책

우선 평소 물을 충분히 마시거나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면 감염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의사들은 조언했다. 하지만 감염됐다면 어디에 감염됐는지를 확인하고 치료해야 병원 입원을 피할 수 있다.

소변볼 때 통증을 동반하거나 하복부 통증, 급하게 소변을 보고 싶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초기 치료는 보통 경구용 항생제로도 가능하다.

밴더빌트 메디컬센터의 로저 모초우스키 비뇨기과장은 어떤 경우에는 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환자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피로감과 권태감을 느낄 수 있다. 그는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초우스키 과장은 “나이가 들수록 요로 감염으로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전했다.

손김기자

contact@usmetronews.com

미성년 자녀 IRA 개설해 은퇴 자금 증여해 보자

아르바이트 등 근로 소득 매칭해 주고 자녀들의 은퇴 자금 챙겨 줄 수 있어 연간 6,000달러까지 IRA에 증여 가능 전통이나 로스냐는 미래 상황 따라 결정

은퇴 준비는 젊어서 시작할수록 더 큰 돈을 손에 쥌 수 있다. 젊다는 정의가 꼭 성인에 해당하는 말은 아니다. 미성년 어린 자녀들도 충분히 은퇴 구좌를 만들어 자금을 적립할 수 있다. 또 부모 또는 조부모가 미리 이 은퇴 구좌에 돈을 증여로 적립해주면서 자손들의 미래를 도와 줄 수 있다.

요즘 미국인들은 미성년 자녀 또는 손자 손녀의 이름으로 개인 은퇴 구좌(IRA)를 만들어 돈을 적립해 준다.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자녀들이 큰 돈을 은퇴 자금으로 모을 수 있고 또 훗날 자녀들이 적립된 금액을 학비나 첫 주택 구입할 때, 또는 비상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매우 바람직한 조기 투자 교육이다.

IRA란

IRA는 당장 세금을 내지 않는(세금 유예) 개인 은퇴 저축 구좌다. 직장 고용주가 제공하는 401(k) 플랜과 매우 유사하다. 적립할 때 세금을 내지 않으며 적립금도 찾아 쓸 때까지 세금 없이 투자해 불려 나간다. 하지만 401(k)과 달리 개인이 구좌를 개설한다.

IRA에 돈을 적립하려면 일을 해서 번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하고 적립금도 한계가 있다. 1개 이상 구좌를 오픈할 수 있지만 개인이 1년에 IRA에 적립할 수 있는 돈에 한계가 있음으로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 또는 손자 손녀의 IRA에 돈 증여해 주기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의 이름으로 IRA를 개설해주고 돈을 적립해준다. 이럴 경우 적립하는 돈은 증여(gift)가 된다. 여기에는 알아 뉘어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다.

▲자녀들의 IRA에 돈을 증여하려면 자녀들이 그만큼 일을 해 번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한다.

▲2021년 기준으로 연간 적립 가

능한 금액이 6,000달러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립하면 초과금을 뺀 때까지 매년 6%의 세금을 내야 한다.

▲미성년 자녀들에게 증여한다면 보호자가 관리하는 자녀들의 이름으로 된 '양육 구좌' (custodial account)를 개설해야 한다.

자녀들의 IRA를 개설하고 여기에 돈을 증여해 준다. 이구좌는 자녀들이 주법에 따라 18세 또는 21세가 될 때까지 구좌를 개설해 준 보호자가 관리한다. 보통 부모 또는 조부모가 개설해 주며 구좌 개설을 위해 자녀 또는 손자/손녀 등 증여를 받을 미성년자의 이름과 소셜시큐리티 번호, 주소가 필요하다.

일단 구좌가 개설되면 직접 돈을

구좌에 넣어 줄 수 있다.

하지만 1년에 6,000달러를 넘길 수 없고 또 자녀나 손주들의 근로 소득 이상은 적립할 수 없다. 또 일단 적립된 돈을 보호자가 되찾을 수 없다. 보호자는 자녀 또는 손주들이 장성할 때까지 적립된 돈의 투자 결정만 할 수 있다.

이 구좌는 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서인 FAFSA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FAFSA는 학생들의 학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대학 입학 자녀의 전체 자산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기부 한계 금액에

예를 들어 미성년 딸의 IRA에 증여한다면 딸의 근로 소득이 얼마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방과 후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도 있을 것이고 부모의 일을 도와 보상을 받는 돈도 있을 것이다. 물론 모든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영수증 등 서류가 필요하다.

방과 후 아르바이트로 1년에 3,500

달러를 벌었다면 부모는 딸 대신 IRA에 3,500달러까지 적립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딸이 6,500달러를 벌었다고 해도 1년 한계 금인 6,000달러 이상은 줄 수 없다.

자녀 IRA 만들어 주기

모든 브로커 회사들이 '양육 구좌'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찰스 슈왓, 페덜리티, 이트레이드, TD아메리트리레이드 정도만 가능하다. 자녀들의 이름과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필요하다. 부모는 보호자로서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적립금의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자녀들의 IRA에 적립해주는 돈은 증여세 대상인가

2021년 기준으로 1년에 수혜자 1명당 1만5,000달러씩 세금 보고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이 금액은 연간 IRA 적립금 한계 6,000달러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증여세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설령 연간 증여 금액 1만5,000달러를 넘었다고 해도 세금을 내지는 않는다. 다만 세금 보고할 때 IRA에 신고는 해야 한다. 초과 금액은 평생 증여세 면제 금액인 개인 1,170만 달러(2021년 기준)에서 공제되므로 세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열심히 증여해 이 금액을 초과했다면 초과된 금액부터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큰 부자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다.

자녀 또는 손주들의 근로 소득이 없는데 IRA에 돈을 적립해 줄 수 있나

안된다. IRA 소유주(자녀)는 반드시 세금을 내는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한다. 과세 근로소득은 주로 고용주로부터 받는 급여, 팁, 또는 자영업자 수입이다. 만약 자녀 또는 손주가 이런 근로 소득이 없다면 안타깝게도 IRA에 증여로 적립해 줄 수 없다.

참고로 이자 수입, 투자 수입 배분, 연금, 실직수당, 소셜연금 등은 근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녀, 손주들의 IRA에 증여하는 다른 방법은 있나

평생 적립한 IRA 구좌가 있다면 죽은 후 자녀 또는 손주들에게 IRA를 증여로 물려줄 수는 있다.

그러려면 IRA 수혜자 이름으로 자녀 또는 손주를 올려놔야 한다.

자녀를 위해 전통 IRA가 유리한가 로스 IRA가 좋은가

가족의 현재 또는 미래의 세금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 로스 IRA는 전통 IRA와 달리 세금을 낸 후(세후) 수입으로 적립한다. 따라서 자녀들이 은퇴 나이가 돼 돈을 찾을 때 세금을 내지 않고 쓸 수 있다.

자손들이 먼 훗날 많은 돈을 벌어 은퇴한다면 당연히 로스 IRA가 좋을 것이다. 그래야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로스 IRA 역시 전통 IRA와 같이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하고 연중 적립 한계 금이 6,000달러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광고 (562)538-8581
contact@usmetronews.com



\$0 의사진료 및 병원 입원 **\$125/분기** 일반약 수당

\$0 차량 서비스 (연중 무제한 왕복) **\$50/월** 헬스센터 멤버십과 피트니스 수당

\$0 식료품* **\$300/년** 안경 비용

\$0 제네릭 약 (단계 1 & 단계 2) **\$2,000/년** 보청기 수당

포괄적인 치과 커버리지

1-800-305-0738 TTY: 711

주 7일 오전 8시 부터 오후 8시까지 • centralhealthplan.com

센트럴 헬스 메디케어 플랜은 메디케어와 계약을 맺은 HMO 플랜입니다. 센트럴 헬스 메디케어 플랜 등록은 계약 갱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혜택들은 해당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께만 적용됩니다

H5649_092421_4002_001KO_M

무제한 병원 입원 “ 무제한 교통편 제공 ” 무제한 구강 검사

센트럴 헬스 메디케어 플랜 한상일 매니저 “최고의 선택될 것” 강조

10월 15일부터 12월 7일은 메디케어 연례 가입 기간이다. 이를 AEP(annual enrollment period)라고 부른다. 극빈자 보조를 받거나 은퇴, 이주, 만성 질병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1년에 한 번만 마음대로 플랜을 변경할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여러 보험 회사들의 플랜 또는 같은 회사의 플랜이라도 종류가 다른 플랜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보험 플랜을 여러 개 신청해도 된다. 하지만 12월 7일 마감

일 전까지 마지막에 신청한 플랜이 내년 1년 가입자의 건강을 책임질 보험이다.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제공하지 않는 치과, 침술 등 추가 혜택이 많은 메디케어 파트 C로, 파트 C 플랜에서 다른 파트 C 플랜으로 등등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이 기간을 놓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내년 AEP 기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센트럴 헬스의 한상일 브로커 어카운트 매니저는 “이 기간 중 비용 부담이 거의 없고 추가 혜택이 풍부

한, 센트럴 헬스 메디케어 플랜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상일 매니저가 밝힌 센트럴 헬스 메디케어 플랜 관련 일문일답이다.

-센트럴 헬스 메디케어 플랜은 어떤 회사인가

▲센트럴 헬스 메디케어 플랜은 좀 더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다양한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려는 의사들에 의하여 2004년 설립됐다. 현재 한인사회와 친숙한 서울 메디

컬 그룹을 비롯해 한미 메디컬, 센터 메디컬 등 50개의 IPA(메디컬 그룹)와 계약되어있다. 매년 바뀌는 다른 플랜들의 혜택들과 다르게 센트럴 헬스는 의사 방문 및 병원입원 등 대부분의 기본 혜택이 ‘0’ 코페이로 유명하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

▲반드시 파트 A와 파트 B에 가입했어야 한다. 또 서비스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 벤추라 카운티와 북가주 산마테오 카운티 지역 거주자만 된다.

-2022년 하이라이트(메디케어 플랜)를 정리한다면

▲무제한 병원 입원을 제공한다.
▲50마일까지 왕복 무제한 교통편 제공한다. 시니어들이 더이상 병원 다닐 때 택시 등 교통편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매달 50달러 까지 피트니스 비용을 보조한다. 지정된 헬스클럽 뿐만 아니고, 골프장 그린피와 연습장 비용도 포함된다. 또 한군데서 다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20달러 골프장 + 30달러 헬스클럽 해도 된다.

▲당뇨 등 해당 만성 질환이 있다면 농산물/과일 배달 (1달에 1박스씩) 받을 수 있다. 부부가 해당된다면 서로 다른 날 배달 받을 수도 있다.

▲치아 미백, 스케일링을 포함한 많은 치과 치료를 ‘0’ 코페이로 받을 수 있다. 치과치료는 년 최대 사용 금액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 무제한 구강 검사 등 필요하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구급차도 40달러로 대폭 내렸다. 보통 구급차의 경우 가까운 거리도 비용이 많이 나온다.

▲MRI, CT 등 비싼 검사도 \$0 코페이, 매년 300달러까지 안경 혜택, 한국 등 해외에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을 때 최대 10만 불 까지 치료비 환불, 보청기 2,000달러까지 보장, 일반의약품 (OTC)도 매 3개월마다 최대 125달러 주문 가능하다.

광고 (562)538-8581
contact@usmetronews.com

강산이 변해도 JAY PARK은 변함이 없습니다

메이저보험회사와 비교한 저렴한 플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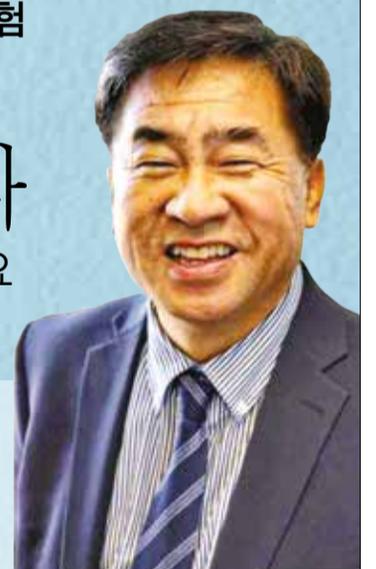
LA에서 가장 저렴한 자동차보험(개인 / 상업용)
사고 잦은 운전자, 음주운전 위반자, 초기 이민자, 초보운전자
패밀리 멀티플랜 완비(2인 이상) 사고 시 신속 처리

OBAMA CARE(오바마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365일 건강보험 전문보험 Agency를 찾고 계신가요?

Workers Comp(가장 부담적은 보험료의 종업원 상해보험)
고객도 좋고, 매상도 떨어지는 불경기에 가장 경제적이고 저렴한 종업원 상해보험을 알려드립니다.

35년 보험전문인 JAY PARK이 자신 있게 소개하는
메디케어 건강보험(개인, 그룹)/사업체 자동차 보험

“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월서 JAY PARK 종합보험의 LOW 를 만나세요
”



CA ins. Lic.#0C84280
월서 JAY PARK 종합보험
WILSHIRE JAY PARK INSURANCE AGENCY, INC.
2975 Wilshire Blvd., #608, Los Angeles, CA 90010

월서 JAY PARK 저가(가장싼) 보험의 LOW 보험 TEAM

213.380.9801

월서 JAY PARK 종합보험은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함께합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 4년 연속 환자 만족도와 의료진 진료 수준 **최고 5성급 메디칼 그룹**

www.seoulmedicalgroup.com



“팬더믹으로 날카로워진 고객 상대 싫다”

직장 그만두는 미국인 크게 늘어
구인난으로 소규모 서비스 업체 타격
활황세 노동시장 혜택 더 많은 직장으로
종업원이 갑으로 변하는 새로운 현상 두드러져



직장을 그만두는 미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이 인력난에 시달리면서 스톱 비즈니스 업주들에게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430만 명에 육박하는 근로자들이 직장을 그만뒀다.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요즘 근로자들은 직장 선택의 폭이 넓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과거 고용주에 힘없이 끌려다니던 때와는 전혀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한마디로 근로자 전성시대가 온 것이다.

근로자들이 그렇다고 일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더 좋은 베니핏, 봉급, 그리고 대접받는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다. 또 팬더믹으로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경쟁 업체의 스카우트 제의도 많이 늘어났다.

특히 미국인 절반 이상은 자영업을 선호할 정도로 직장 근로에 대한 회의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또 젊은 세대들은 자유시간과 가족과 지내는 시간이 자유로운 직장으로의 선호도가 높아진 것도 구인난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어떤 직종의 근로자들이 그만두나

직장을 떠나는 근로자 중 약 89만 2,000명은 식품 서비스와 관련 산업 종사자로 나타났다. 또 72만 1,000명은 소매 판매점 직원이었고 53만 4,000명은 의료 관련 종사자 또는 소셜 서비스 관련 분야들이었다.

이들 직장 대부분은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직종으로 분류된다. 팬더믹 기간 중 직접 고객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팬더믹으로 인해 거칠고 참을성이 없어진 데다가 화를 잘 내는 대중을 상대로 해야 한다.

그렇다고 이런 직종의 근로자들만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아니다. 연방노동통계청은 거의 모든 분야의

직종에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떠난다고 밝혔다.

직장을 떠나는 근로자들이 직장이 지긋지긋해서 떠나는지 혹은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어서 인지를 확실하지 않다.

‘포워드본즈’ 수석 이코노미스트 크리스 럽키는 “경제가 강한 활황세를 보이면서 노동인구가 많이 필요해진 것 많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노동 인구가 많이 필요해지면서 직원들은 다른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동일 분야의 다른 직장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봉급도 더 많이 주고 자신들이 원하는 기타 혜택도 더 많이 주는 직장을 찾아 나선다는 것이다.

사실 직업 시장이 풍성한 시기에는 전체 커리어를 바꿔 가면서까지 직업을 바꾸는 때는 아니다. 앞서 노동부의 직장 퇴직자 수는 은퇴자는 제외된 수치다.

그만두는 이유

경제학자들은 수년 동안 계속되어 온 저임금과 스트레스 수준의 근로 환경을 꼽는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 층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직종 근로자들은 요즘같이 직원 찾기가 별 따기 인 고용 환경 속에서는 다른 직업을 쉽게 구할 수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직원 확보 안간힘

직장마다 그만두려는 직원들을 붙잡아 두고 또 새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 각종 베니핏을 내걸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매니저급이 아닌 일반 식당과 바 종업원의 평균 임금은 처음으로 시간당 15달러를 넘겼다. 또 베스트바이, CVS, 월그린, 시그나, 디즈니랜드, 코스코, 아마존

도 최소 15달러 이상을 준다. बैंक 오브아메리카도 최저 임금을 17~20달러 상향했다. 타겟, 월마트, 아마존은 직원들의 대학 등록금도 제공하며 종업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

무료 점심, 근무시간 자율 조정 등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각종 베니핏들이 특히 식당 종업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치폴레, 맥도널, 올리브 가든도 올해 임금 인상을 발표했다. 맥도널 플랜차이즈는 비상 상황에서 종업원들이 자녀 케어, 교통 바이처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치폴레 역시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틱톡으로도 직원 이력서를 받고 있다.

연방정부는 지난 9월 초로 연방 실직 수당 보조를 종료하면 다시 직장을 구하는 미국인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각 비즈니스마다 임금을 올려주고 보너스 등 베니핏 제공이 과연 돌아선 근로자들을 다시 직장을 끌어들이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은 상태다.

소규모 업체들 타격

팬더믹이 미국을 강타하기 전 수년 동안 소규모 비즈니스 업주들은 직원의 봉급과 베니핏을 대형 회사들이 제공하는 수준으로 맞출 수 있을지 우려해 왔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우려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연방 상무부의 톰 설리반 스톱비즈니스 정책 부부장에 따르면 스톱비즈니스 업주들은 요즘의 근로자 부족 현상에 자포자기 한 상태다. 많은 업소들이 경험 있는 직원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에 거의 새 종업원 확보를 포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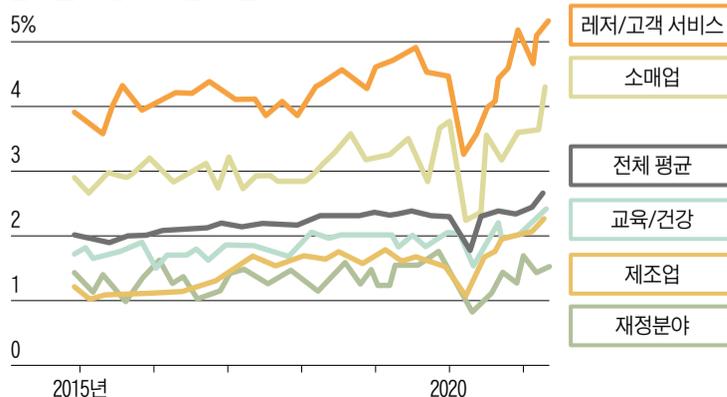
상무부는 최근 고용주들이 필요한 인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아메리칸 워크’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또 아직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상무부는 연방 부서들에게도 협조를 구하고 있다.

수년 동안 ‘소모용’ 정도로 취급되며 홀대받아오던 미국 근로자들이 이제는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일부는 더 높은 임금과 베니핏을 제공하는 업체로 이직하고 있고 또 일부는 자영업을 시작했다.

자넷김 기자 janet@usmetronews.com

분야별 직장 떠나는 비율(단위: %)



남가주 화물선 대란 미국인들 '과소비' 때문

**롱비치, LA 항에 100여대 화물선 정박
디젤 엔진으로 해상 오염도 심각
수입품에 익숙해진 미국 반성 여론도**

LA와 롱비치 항구의 화물선 하역 대란이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입 물품 부족으로 미국 내 내수 가격이 올라 가면서 팬더믹 이후 경제 회복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급기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주7일 24시간 하역 작업을 지시했고 개리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내년 1월 항만 하역 시설의 전산화를 발표했다. 사실 롱비치와 LA 항은 정부가 소유하지 않는다. 개인이 소유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정부의 조치가 별다른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롱비치와 LA 항 앞 바다에 줄을 선채 하역을 기다리는 화물선이 미국 경제에 그만큼 큰 충격을 가져올 것인가를 냉철하게 따져 봐야 한다. 당장 하역 못한 100만 개에 달하는 컨테이너에 든 물건이 없어 미국 경제가 휘청댈 정도로 경제 대란을 초래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할 시기가 온 것 같다.

특히 대기 중인 컨테이너 속 물건들이 없다면 당장 미국인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거나 추위에 떨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그동안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 밀려 미국 내 소비자 생산 시설은 거의 사라진 지 오래다. 싸구려 물건에 길들여진 미국인들이 말도 되지 않은 가격에 쏟아져 들어오는 중국산 물건에 익숙해져 쓰고 버리기를 반복하고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글로벌 경제를 선언하며 미국의 제조업은 몰락의 길에 들어섰다. 중국이 생산하고 미국이 쓴다는 개념이다. 당시만 해도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면 공장 시설의 오염도 방지하고 골칫거리인 제조업의 임금 착취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심지어 버락 오바마는 첫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는 이제 찾기 힘들 것이라며 모든 미국인들의 대학 진학을 외쳤다. 미국은 머리 역할을 하고 중국 등 동남아는 몸통을 맡아 미국인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상황은 그와 정반대로 바뀌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쫓기는 형국이 돼 버리고 오만한 중국의 횡포를 미국인들은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하는 실정이 돼 버렸다. 미국이 던진 부메랑에 뒤통수를 맞은 꼴이다.

싼 물건에 맞들려 과소비에 길들여진 미국인들이 팬더믹으로 외부 출입을 하지 못하고 손발이 묶이자 소비재 구입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 소비가 늘어나면서 물품 수입이 늘어난다. 겹겹이 컨테이너를 쌓아 올린 대형 화물선이 중국에서 신바람을 내며 남가주로 몰리고 있다.

롱비치와 LA항이 감당할 수준이 넘어선 것이다.

100여만 개 물품 컨테이너 대기

10월 말 현재 롱비치 앞바다에 정박한 화물선 수는 150대에 육박한다. 10월 중순까지 97대로 기록적 병목

현상을 보이더니 1주 사이에 45대가 추가로 도착했고 연말 대목을 맞아 미국으로 질주해 들어오는 화물선들이 태평양을 줄지어 가로지르고 있다. 팬더믹 이전에는 하역 대기 화물선이 평균 17대에 그쳤다.

피트 버티기 교통부 장관은 항만 상황이 매우 복합적인 문제로 단지 남가주만의 사태는 아니라고 밝혔다. 뉴저지와 텍사스, 시애틀 등 다른 항구 역시 병목 현상이 보이고는 있지만 남가주만큼 심각한 수준은 사실 아니다.

남가주 항구의 하역 속도는 평균 3.6일에서 6.4일로 늘어났다. 24시간 운영되는 아시아 주요 항구보다도 거의 5일이 더 길다. 이에 따라 화물선의 하역 대기 시간이 요즘 3주나 걸린다.

하지만 화물선 적체 현상은 단순히 작업 시간이나 트럭 기사 부족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물건들이 원인이다. 물론 반도체 등 자동차 부품 등 미국 산업에 꼭 필요한 물품도 많겠지만 대부분 소비재 물품들이다.

팬더믹이 시작되면서 여행이나 극장, 공연 등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는 미국인들의 소비가 가정용품부터 잡화, 자동차까지 상품 구입으로 몰린다. 이 때문에 수입 상품이 증가하고 거의 모든 생필품을 외국 수입품에 의존하는 미국인들이 구입할 물건들이

항구를 통해 대거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과소비가 문제

미국이 현재 겪고 있는 공급망 위기는 물건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과소비에 익숙해진 미국인들이 살 것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미국인들은 손에 잡히는 대로 산다. 팬더믹으로 인해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공급업체 측에서는 신바람 나게 이를 충족시키고 있다. 그러려면 많은 소비재 상품들을 확보해야 하는데 거의 대부분 중국 등 아시아에서 수입된다.

연방 센서스국이 조사한 수요와 공급 비율을 살펴보자. 소매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 대비 소비자 구매 비율은 10년 내 최저 수준이다. 다시 말해 팔 물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LA 항으로 들어오는 화물이 올해 9개월 동안 30%가 늘어났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비식료품 상품들 대부분이 수입품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톤 항구 역시 지난 3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창고 건물이 부족할 지경이라고 한다.

2021년 9개월 동안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8% 증가했던 2021년보다 14.5%나 더 올랐다. 전국 소매업 재단은 연말까지 10.5~13.5% 소매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입품이 쏟아져 들어오고 미국인들은 이를 신나게 사들이면 또다시 재고가 부족해 수입이 더 늘 것이고 또 이를 미국인 소비자들이 사재기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미국의 경제는 생산보다 수입으로 견뎌야 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화물선 적체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있다. 소비를 자제하는 것이다. 구입하지 않으면 수입 물품도 줄어들어 미국으로 유입되는 수입품도 줄어들게 돼 있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Long Time No See” 동양인 비하 표현이었어?



김연신의
천 냥 빚을 갚아주는
영어 한마디

영어회화를 배울때 가장 흔하게 접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Long Time No See다. 기억하기 쉽고 오랫동안 만나는 사람에게 친근하게 할 수 있는 인사말이기에 자주 사용한다. 하지만 이 인사말에 동양인 비하의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쓰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Long Time No See는 중국어 好久不見(호구불견)을 직역한 표현이다. 19세기말 중국인들이 교역과 이민을 통해 영어권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broken English(서툰 영어)로 Long Time No See라는 인사말을 썼다. 백인들이 이 표현을 따라하면서 관용구로 정착된 것이다. Long Time No See가 미대륙 원주민들이 쓰던 잘못된 영어

표현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설도 있다.

이렇게 다른 언어와 혼합돼 변형된 영어를 pidgin English라고 한다. Pidgin은 중국인들이 business를 잘못 발음한데서 붙여진 명칭이다. 참고로 pidgin은 pigeon(비둘기)과 동음이의어(homophone)다. 스펠링과 뜻이 다르지만 발음이 같다. 발음은 [피즌]에 가깝다.

Pidgin English는 비원어민들이 원어민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영어의 발음과 문법을 단순화하거나 변형해 사용하면서 만들어진 일종의 보조 언어다. 중국 피진영어(칭글리시) 외에도 나이지리아, 하와이, 파푸아뉴기니 피진 영어가 있다.

그렇다면 왜 일부 영어학자들과 교육자들은 Long Time No See를 쓰지 말자는 의견을 제시하는가? 이 표현이 영어를 제대로 못하는 중국인들을 백인들이 비웃으면서 시작됐다는 지적때문이다. 일부 몰지각한 원어민들이 처음보는 동양인에게 액센트를 흉내내며 Long Time No See라고 인사하는 장난을 치기도 하는데 이런 미묘한 인종차별을 microaggression이라고

한다. 동양인을 보면 “곤니찌와” “니하오” 하면서 장난을 치는 백인들도 있는게 역시 무례하고 유지한 인종차별 행동이다.

피진 영어 자체가 미국, 영국 등 서양세력이 외국에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만들어진 언어 형태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바람직하지 않은 역사적 배경이 있는 피진 영어 표현들을 현재 미국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동이라는 것이 일부 지식인들의 입장이다.

중국 피진 영어에서 시작된 또다른 영어 표현은 No can do(I can't do it), No Pain No Gain(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chop chop(Hurry up) 등이 있다. 태풍(颱風)을 뜻하는 Typhoon 타이푼과 재계 거물(대군 大君)을 뜻하는 Tycoon 타이쿤은 중국어가 영어로 편입된 예다.

그렇다면 이민자인 우리는 이 표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Long Time No See는 It's been a while. I haven't seen you in ages.로 대체해 말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세련되고 듣기도 좋다. 실제로 원어민들은 Long Time No See를 잘 쓰지 않

는다. 일부 언어학자들과 ESL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피진 영어 표현들을 소개하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 사용을 자제하고 대체 표현을 가르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Long Time No See의 사용 여부는 결국 개인의 선택이다. 하지만 외국인이나 이민자가 원어민과 소통하기 위해 영어를 사용했을때 발음이나 표현이 서툴다고 놀리던 데서 시작됐다는 의심을 받는 관용구를 우리가 굳이 쓸 필요가 있는지는 생각해볼 문제(food for thought)다. 외국인을 대할 때 다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서양 우월주의에 뿌리를 둔 타문화를 경멸하는(derogatory) 태도가 일부 피진 영어 표현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김연신

UCLA 정치학 전공TESOL 부전공 / 라디오 코리아, 미주 한국일보 기자 / 영어 관련 블로그, 소셜 미디어 그룹 운영.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milesmiles0803>

폐창가, ‘라스베가스 제외 서부 최고 카지노·호텔’ 올라



캘리포니아 테메쿨라에 있는 폐창가 카지노/리조트 전경.

Pechanga

USA투데이 설문조사, 호텔·카지노 2개부문 1위

폐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USA투데이가 뽑은 10 베스트 호텔 카지노에서 ‘라스베가스를 제외한 서부 최고의 카지노’ ‘서부 최고의 카지노 호텔’로 뽑혔다. 캘리포니아 호텔/카지노 중에서는 유일하게 두개 부문에서 올라 서부 최고를 인정 받은 것이다. 이번 투표는 9월 중순부터

10월 11일까지 계속됐다. ‘라스베가스 제외 지역 최고의 카지노’ 부문 1위는 미국 동부지역의 카지노/리조트에게 돌아갔고, 폐창가는 2위를 차지했다.

폐창가 개발 회사(Pechanga Development Corporation)의 대표이사 앤드류 마시엘은 “서부 최고로

뽑힌 것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폐창가는 USA 투데이의 2015년부터 시작된 투표에서 한 해도 빠짐없이 후보에 이름을 올려왔다.

캘리포니아 테메쿨라에 위치한 리조트/카지노는 매년 모든 부문에서 10위 안에 들어왔으며, 2015년에는 미국 최고의 카지노 1위에 뽑히기도 했다.

알립니다

시니어 미술 공모전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어 두었던 미술에 대한 묵혔던 꿈과 그동안 숨겨 두었던 재능을 펼쳐 보이며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시니어 및 예비 시니어들에게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하는 제1회 시니어 미술 공모전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오랫동안 한인들의 사랑을 받아온 리앤리 갤러리와 백세 세대를 겨냥한 웰빙 가이드를 지향하는 US 메트로 뉴스는 이번 공모전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을 다양한 문화 예술 세계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 ▶신청 접수 : 2021년 11월 15부터
- ▶작품 마감 : 2022년 1월 15일
- ▶심사 발표 : 2022년 본보 2월호 공지, 개별 통보
- ▶주제 : My Memorable Time(나에게 소중한 시간)
- ▶작품규격 : 캔버스나 종이 (18×24인치를 넘지 말 것)
- ▶미디어 : 수채화, 유화, 아크릴화, 믹스드 미디어
- ▶참가비 : 50달러(1인 1점) ※입상작은 리앤리 갤러리에서 전시
- ▶시상 : 대상, 1등, 2등, 3등, 입선작 20명
- ▶신청 및 문의 : (213)365-8285 이아그네스
- ▶작품 제출 : 3130 Wilshire Blvd. #502, LA, CA 90010
- ▶협찬 및 후원 : 농심 아메리카, 서울 메디컬 그룹, 한국 노인회



교통사고 났을 때 “잘못했다” 하지 마세요!

전문가칼럼

정대용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그룹



교통사고 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사고가 났을 때 “잘못했다”고 말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후에는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 내용을 포함해 교통사고 났을 때 주의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잘못했다”고 말하거나 그러한 뉘앙스를 비추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분들이 의도치 않게 잘못을 인정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말로 직접 “나의 잘못(it was my fault)”이라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한다거나

나 순수한 마음에 건넨 한 마디가 잘못을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물론 보험회사나 목격자, 심지어 제삼자와 얘기할 때도 잘못했다거나 미안하다는 뉘앙스를 비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케이스가 마무리될 때까지 소셜미디어(SNS)와는 거리를 두십시오!: 소셜미디어는 비단 젊은이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어르신들 중에도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케이스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SNS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당신의 SNS를 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쳤다면 클레임을 진행하고 있을 때 보험회사에서 여러분이 테니스를 치고 있는 사진을 발견한다면, 당장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있다며 보상금을 주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3. 병원치료를 꼭 받으십시오!: 교통사고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인이 “괜찮다”고

말합니다. 타인종들이 조그만 사고에도 아프다는 핑계로 회사에 결근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인들은 어지간한 통증은 참고 회사에 나갑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사고 후에는 꼭 병원에 들러 몸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고나 상처에 대해 과장해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 누가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고 몸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는데 확실하지 않을 때는 그냥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게 좋습니다.

4. 변호사 동의 없이 의료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케이스가 진행될 때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의료 정보 공개’에 동의하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병력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 아픈 것은 이번 사고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 합의나 재판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리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 보험회사에 제때 클레임하십시오!: 생각보다 많은 손님들이 사고난 지 한참 뒤

에야 변호사 사무실을 찾습니다. 6개월 전에 사고난 것을 갖고와 발이 아프다느니, 허리를 다쳤다고 하면 사고와 현재 통증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란 제 아무리 천재 변호사라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클레임 ‘마감 시한(Statute of Limitation)’ 을 갖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이를 엄격하게 지키기 때문에 이를 넘겨 클레임하면 피해를 봤어도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뒤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적게 보상하려는 보험회사(변호사)와의 지루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문의 (213)351-3513, www.alexchalaw.com

‘법으로 돕는 남자(法助男)’ 정대용 변호사는 고려대 사회학과와 Abraham Lincoln 로스쿨을 나왔으며 매일경제와 미주한국일보(LA)에서 기자로 근무했습니다. 광고홍보회사 URI Global을 거쳐 현재는 ‘알렉스 차 변호사그룹’에서 교통사고/상해/레몬법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미래를 위한 자산관리 “한솔 노후 연금 적립 플랜”

은행 CD나 일반 Money Market 저축보다 월등한 Equity Indexed Life와 Indexed Annuity를 소개합니다.

- ✓ Indexed 생명보험으로의 Income, Accumulation, Withdrawal 등에 대한 Tax-free 혜택
- ✓ 높은 Indexed Rates + 각종 Bonus 제공
- ✓ 더 높은 은퇴연금 수익을 위해 Social Security + Indexed Annuity + Indexed Life 등의 종합인컴플랜 혜택
- ✓ 종합 주가지수 하락 시에도 적립금 유지되고 상승시에는 Max cap까지의 적립금 상승의 2중 혜택
- ✓ 100세 건강장수를 위한 장기 간호케어(Long Term Care) 10년후 적립금 원금 보장이나 적립금의 300% 혜택 (예: \$100,000 적립 시 \$300,000 혜택)
- ✓ 생명 보험금 + 은퇴 연금 + Living Benefits (Chronic 질병/ Critical 질병/ Terminal 질병 등)

취급상품

- 사망보험금 보장
- Indexed Rates의 은퇴 저축
- 생전 혜택 보장(Living Benefits)

- 개인연금(IRA)
- 회사 연금(SEP IRA & 401K)
- Rollover & Tax 유예

- LTC 플랜(300% 혜택이나 원금 보장)
- 평생 Income
- 묶돈 저축(Indexed)



윌리엄 황
CA License#0E52100

Hansol Since 1977 생명/은퇴연금/Medicare/LTC
한솔종합보험(주)

대표전화 (213) 487-4900 | (800) 300-0703

LA주소 3598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04 | OC주소 6301 Beach Blvd Suite 304, Buena Park CA 90621

공공분야 근무자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 확대

(PSLF)

대학 학자금 부채가 졸업생들의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연방 교육부가 공공 분야 근무자들의 학자금 부채를 탕감해주는 '공공서비스 분야 대출 탕감 프로그램' (PSLF)을 확대한다고 지난달 8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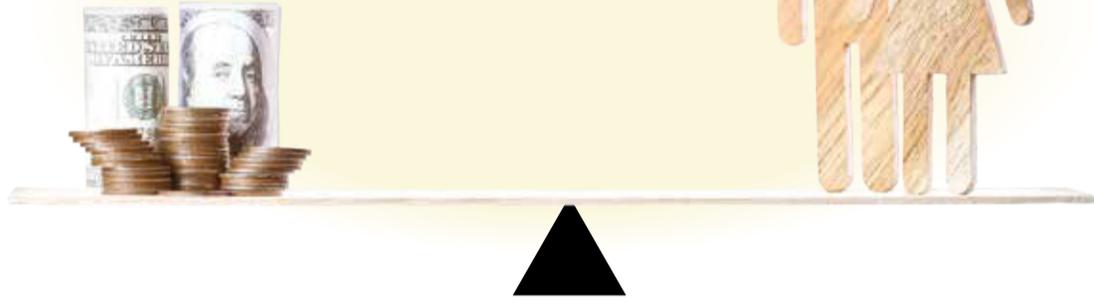
원래 PSLF는 연방 정부 디렉트 론 대출자에 국한됐으나 교육부는 이번에 자녀들을 위해 학부모나 가족들이 대출을 받는 일명 F.F.E.L. 대출(Federal Family Education Loans)까지로 확대한다. 이 확대안은 2022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이번 확대 발표로 탕감 혜택을 받으려면 마감 전 신청해야 한다. 그동안 PSLF 프로그램은 변죽만 울렸지 실제 탕감을 받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연방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신청자 100명 중 탕감 프로그램의 스케줄에 따라 120개월(10년) 동안 일정 금액을 상환해 나머지 잔금을 탕감받는 경우는 2명에 불과하다. 이는 복잡한 과정과 까다로운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신청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교육부는 그동안 장애 요인으로 지적된 4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공공분야 근로자 학자금 대출금 탕감 프로그램(PSLF)이란

2007년부터 시행된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정부 기관, 비영리 단체 근로자가 120번 페이먼트만 내면 남아 있는 학자금 대출금 잔고를 탕감해 준다. 물론 탕감된 잔고는 세금도 면제해준다. 대상은 연방, 주, 지방정부 근로자, 교사, 자선단체 근로자, 비영리 병원 등에서 봉급을 받고 근무하

120번 페이먼트 내면 잔액 모두 탕감
연방 보증 가족 FFEL 대출금도 대상
2022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 접수



는 사람 등 수천만 명이 대상이다.

탕감 자격은

이번 한시적 확대안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4가지 주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풀타임 근무자여야 하고 탕감 대상 학자금 부채도 연방정부 제공 '디렉트론' 과 수입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월 상환금을 조정하는 재정 상환 플랜에만 한정돼 있다. 또 연방 재정상 플랜으로 페이먼트를 조정할 경우 탕감이 가능하고 돈을 빌려준 용자 회사의 페이먼트 기록에 120번 페이먼트를 연체 없이 지불해야 나머지 잔고의 탕감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확대 정책에 따라 연방 정부 보증으로 가족이 일반 대출회사로부터 학자금을 빌리는 'FFEL' 용자도 탕감에 포함된다. 그동안 탕감 프로그램 신청자 중 80%가 FFEL 용자였다. FFEL 용자를 받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120개월 페이먼트를 거의 다 채울 때쯤 해서야 탕감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반발해 왔다. 제대로 대출 회사가 알려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용자받은 FFEL을 다시 연방 디렉트론으로 통합 시켜 탕감 자격을 받을 수 있지만 그동안 낸 FFEL 페이먼트는 120개월 상환 플랜의 크레딧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이전 페이먼트도 모두 크레딧으로 인정받게 된다.

따라서 2022년 10월까지 어떤 종류의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도 모두 해당되며 또 어떤 상환 플랜을 가지고 있어도 모두 가능하다. 또 자격이 되는 직장에 풀타임으로 근무했다면 모든 페이먼트는 탕감 페이먼트로 인정받는다.

어떻게 조정되나

연방 교육부는 FFEL에 냈던 과거 페이먼트 기록을 점검한다. 또 군 복무로 잠정 페이먼트 연기된 경우에도 연체 기록에서 삭제해 준다.

또 풀 페이먼트가 아니라 페이먼트 일부만 냈거나 페이먼트 연장 승인을 받았어도 그동안 페이먼트 크레딧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또 대출 회사의 잘못된 기록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우에 따라 페니가 부족해서 또는 며칠 늦



게 보내도 페이먼트를 내지 않은 것으로 기록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돈을 냈는데도 페이먼트 기록에 오르지 않을 때도 있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를 점검할 것이다.

지금 해야 할 일, 신청 기간은

이미 학자금 부채를 모두 디렉트 론으로 통합시켰고 최소 자격이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교육부가 자동으로 페이먼트를 검사할 것이다.

이런 경우 연방 학자금 지원부(Federal Student Aid)로부터 수주 이내에 이메일로 현재 남은 페이먼트 개월 수를 통보받게 된다.

하지만 탕감 대상이 아닌 FFEL 가족 대출과 같은 탕감 대상이 아닌 대출금을 가지고 있다면 우선 이 대출금을 디렉트 론으로 바꾸고 2022년 10월 31일 이전까지 PSLF 양식으로 작성해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이 탕감 대상인지를 증명해야 한다.

연방 학자금 지원부 공식 웹사이트 studentaid.gov에 접속해 FSA ID를 만들고 로그인해 'My Aid'에서 용자에 따른 양식과 방법을 확인

할 수 있다.

학자금 부채 환불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이미 120개월의 페이먼트 이상을 낸 사람들은 추가로 낸 금액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FFEL 가족 대출을 받은 사람이 페이먼트를 60번 냈다가 디렉트 론으로 통합해 70번 냈다면 돈을 더 낸 10번 페이먼트 모두 돌려 받은 동시에 학자금 모두를 탕감 받을 수 있다.

FFEL 론을 금융회사에서 재용자받았다면

안타깝게도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잘못된 정보나 조언으로 바꾼 사람들이 많다.

자격이 되지 않은 PLUS 론은

연방 정부로부터 PLUS 론을 받은 학부모들은 원칙적으로 PSLF 탕감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탕감 프로그램은 학부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PLUS 론은 유일하게 연방 정부가 보증해 주는 학부모 용자로 일반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자금 대출금보다 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현재 정부 근로자 또는 비영리 단체에서 근무하는 학부모들도 PLUS론을 디렉트론으로 통합시킨다면 PLSF 탕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통합 전 지불했던 상환 페이먼트는 탕감에 필요한 120개월 페이먼트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미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면 120번 페이먼트 이상을 냈어도 환불받지 못한다.

존김 기자

배너광고도 역시 US메트로뉴스

신문과 인터넷으로 최대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광고 · 구독 (562)538-8581

contact@usmetronews.com

디덕터블 높이고, 크레딧 점수 올려 주택 보험료 절약

지난 3년간 11.4% 상승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

인건비·자재비 상승
화물선 적체 등 원인

미국 주택보험료가 올라가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 가정들에 또 다른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커버리지를 줄이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전국 평균 연 주택보험료는 1,398달러다. 이 통계는 보험정보연구소가 내놓은 자료로 2017년과 2020년 동안 보험료는 평균 11.4%가 상승했다. 동기간 인플레이션 7.9%보다 더 높다.

올해는 보험료가 더 올라가 지난 3분기 보험료 상승률은 전 분기의 4.8% 인상률보다 더 높은 6.6%를 기록했다고 보험료 조사 회사 '마켓스카우트'가 밝혔다.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일부 지역은 25%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불 위험지역에 노출된 2,000만 달러 이상의 주택들은 이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

건축 자재비 상승, 수입 화물선 적체
이 같은 보험료 인상은 건축 자재비 상승과 수입 화물 적체 현상 등으로 인해 보험사들의 주택 수리비와 재건축비용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허리케인과 폭풍우, 산불 및 기타 재난으로 인해 2017년 이래 2020년까지 보험사는 3,700억 달러의 보상금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됐다.

케빈 매호니 공인 재정 플래너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용 상승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서 "직간접적으로 물가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가정들이 보험료 인상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트래블러스 보험사의 개인 보험국을 맡고 있는 마이클 크레인 회장은 지난 3분기 주택 보험 비용의 예상을 뛰어넘었다"며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목재 가격은 특히 올해 변동이 심



했다. 올해 가격은 지난 2019년 9월 이후 42% 상승했다. 보험정보 연구소의 데일 포필리오 수석 연구원은 주택 보험회사의 수리 비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밝혔다.

위험 지역 보험료 더 올라
위험 지역의 보험료는 더 큰 폭으로 올랐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플로리다, 루이지애 등 허리케인과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은 지난 21개월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주 정부 보험국들은 이런 지역의 연평균 9% 보험료 인상을 승인해줬다.

연방 정부의 전국 홍수 보험 프로그램은 10월 1일부터 대대적으로 바뀐 보험료 환산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전국 홍수 보험 프로그램은 홍수 다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부의 강제 보험이다. 이 보험료 환산 방법을 사용해 보험 가입자 1/4은 가격이 내려가겠지만 일부 주택 소유자들의 비용은 크게 오르게 된다.

개인 보험사들의 홍수 보험에 가입도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요즘 개인 회사들의 홍수 보험은 개량된 위험-모델 기술과 기타 위험 요소를 확인해 내는 기술을 사용해 가격을 산출한다. 이에 따라 이 대안으

로 나오는 일반 보험사의 상품은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가격이 내려가고 정부 보험보다 혜택도 더 광범위할 수 있다.

보험료 줄이기 고심
주택 보험료가 상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종종 허리케인 방지용 창문 가리개를 설치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집수리를 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플로리다 멜버른 비치에 사는 마이클, 캐시 브로한 부부는 2,450스퀘어피트의 주택에 살고 있는데 3년간

광고 (562)538-8581
contact@usmetronews.com

꾸준히 보험료가 오르더니 2019년 보험료가 5,596달러가 됐다.

이들 부부는 보험 에이전트와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을 상의해 지난해 허리케인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강화 차고 문을 달고 창문 두개도 허리케인에 강한 수준으로 재설치했다. 또 주택 인스펙터를 고용해 지붕이 강력한 건축 코드 기준에 맞도록 묶여 있다는 서류를 작성했다.

비용이 약 3,000달러 들어갔지만 보험료도 그만큼 낮춰졌다. 천연자

원보호위원회의 애나 웨버 수석 정책 분석원은 정부 펀드를 받아 이런 개량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올랜도의 앤젤라 무어 재정 플래너는 소비자들이 적어도 1~3년에 한 번씩은 보험 에이전트와 만나 어떤 종류의 피해를 커버해 주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격이 올라간다면 불필요한 커버리지를 뺄 수도 있다.

주택 보험료 낮추는 방법

▲디덕터블을 올리기: 보험료를 낮추는 가장 빠른 방법은 보험 디덕터블을 올리는 것이다. 디덕터블 500달러를 1,000달러로 높이면 보험료를 20% 절약할 수 있다.

▲홈 시큐리티 강화: 화재경보기를 달거나 절도 경보기, 또는 열쇠를 보완하면 5%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다. 또 방화용 스프링클러 설치 또는 방화 장치를 한다면 15~20%는 절약할 수 있다.

▲소소한 클레임을 피하기: 큰 피해가 아니라 작은 비용이 드는 것들은 클레임을 피한다. 어떤 보험사는 수년동안 클레임이 없으면 할인해 준다.

▲잘 알려지지 않은 할인 프로그램 찾기: 할인 혜택이 있는데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보험 회사는 집에 흡연자가 없거나 최근

집을 샀는지, 은행에서 직접 보험료를 인출할 수 있게 하고, 종이 청구서를 보내지 않을 때, 교사, 엔지니어, 소방관과 같은 직종 근무자의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주택 개량: 주택을 개량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바람을 막아주는 창문, 충격 완화 지붕 등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플러밍을 새것으로 교체하고 전기 시스템을 현대식으로 바꿔도 할인받는다.

▲자동차 보험과 연계: 자동차 보험과 주택 보험을 같은 회사로 한다면 보통 5~15% 보험료가 낮아진다. 절약 수준은 보험 회사마다 다르므로 잘 알아본다.

▲크레딧 점수를 높이기: 크레딧 점수가 높아도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FICO 점수가 630점 아래로 내려가면 보험료는 더 비싸질 수 있다. 신용도 집 관리 능력을 연계해 보는 것이다.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트램폴린, 수영장, 놀이터 장비 등이 있다면 보험사는 보험료에 위험 요소로 추가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 보험료는 낮아진다.

▲시장 조사: 보험료는 보험사마다 다르다. 잘 고르면 연 1,000달러 이상 절약도 가능하다.

자넷김기자



홍기자의 웰빙정보

잘먹고
잘살기

“삶의 일부가 된 커피! 이제 알고 마시자”

커피의 종류와 유래

집에서 즐기는 ‘홈 카페족’
카페 투어하는 ‘카캉스족’
카페에서 공부 ‘카공족’ 등
다양한 신조어 생겨



시나몬 가루나 초콜릿 가루를 위에 얹어 즐기는 카푸치노.

한인들의 커피 사랑은 유별나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커피 수입액은 약 7억 3,780억 달러며 커피 수입량도 17만 6천 648톤이다. 이는 전년대비 각 11%와 5%가 증가한 수치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국의 커피 전문점 시장 규모와 국민 한 명이 카페에서 소비한 돈의 액수는 세계 3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카페 출입에 제한이 있었던 지난 2020년 이후에는 아예 집에 커피 머신을 들여놓고, ‘홈 카페’에서의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기는 ‘홈 카페족’도 늘어났다. 또한 카페 투어를 목적으로 여행을 다니는 ‘카캉스족’, 카페에서 공부하는 ‘카공족’ 등 커피가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사실을 반영하듯 다양한 신조어도 생겨났다.

아침에 혹은 하루 중 피곤할 때 커피 한잔을 수혈(?)해야만 비로소 정신이 맑아지는 당신. 내 혈액 안에 카페인이 흐르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면 당신 역시 커피 없이는 못사는 열혈 커피 매니아 중 하나다. 커피에 진심이지만, 막상 커피에 대한 지식은 부족한 커피 매니아들을 위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커피의 종류와 유래 등을 살펴본다.

에스프레소

카페에서 판매하는 커피의 대부분은 에스프레소를 기본으로 만든다. 에스프레소는 원두를 끓여 우려내던 커피를 좀 더 빠르게 추출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으로, 이탈리아어로 ‘빠르다’라는 뜻이다. 에스프레소 방법으로 추출한 커피 자체를 에스프레소라고 부르면서, 아주 진한 순수 원액 커피를 일컫는 말로 더 많이 쓰인다. 여기에 우유를 섞으면 카페 라떼(Café Latte), 거품을 올리면 카푸치노(Cappuccino), 물을 섞어 희석시키면 아메리카노



코로나 19 이후에는 집에 커피 머신을 들여놓고, ‘홈 카페’에서의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기는 ‘홈 카페족’도 늘어났다.

(Café Americano)가 만들어진다. 에스프레소는 또한 싱글샷, 도피오(Doppio)라고도 불리는 더블샷, 리스프레토(Ristretto), 롱고(Longo)로 나뉜다.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시키면 1온스(약 30ml)의 커피 원액이 소주잔 같은 작은 잔에 서브되며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쓴맛이 난다. 에스프레소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커피로는 커피에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부어 내려 마시는 드립 커피, 뜨거운 물에 커피를 우려내서 마시는 프렌치 프레스 커피 등이 있다.

카페 라떼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넣은 음료로 프랑스식으로는 ‘카페 오레’가 있다. 카페 라떼는 오스트리아의 카푸치노가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발전된 음료다. 미국인들은 커피에 우유를 더 넣어 쓴맛과 신맛을 줄이고 풍부한 바디감을 즐기는 것을 선호했다. 카페 오레가 드립커피에 우유를 넣는다면 카페 라떼는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넣어 만든다는 차이점이 있다. 최근에는 에스프레소 위에 우유를 올리면서 나뭇잎이나 하트 모양 등 다양한 그림을 만들어 넣는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라떼아트’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하여 관련 컨테스트까지 열리는 등 커피매니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카푸치노

에스프레소에 우유 거품을 얹어 만드는 커피 음료로, 오스트리아에서 유래됐다. 카페 라떼와 비슷하지만 우유보다 거품의 비율이 높고, 커피와 섞이는 우유의 양이 작기 때문에



라떼에 나뭇잎이나 하트 모양 등 다양한 그림을 만들어 넣는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라떼아트’ 컨테스트까지 열리는 등 커피매니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커피 본연의 맛은 더욱 진하다. 시나몬 가루나 초콜릿 가루를 위에 얹어 먹기도 한다.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에 뜨거운 물을 부어 희석한 묽은 커피. 호주나 뉴질랜드의 ‘롱 블랙’(Long Black)이라는 커피와 비슷하나 롱 블랙은 물에 커피를 부어 만든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커피로 카페 라떼나 카푸치노에 비해 칼로리가 낮다. 특히 ‘아아’라는 줄임말로 불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얼죽아’(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여름과 겨울 상관 없이 사계절 내내 인기를 끌고 있다.

비엔나커피와 콘 파나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래한 비엔나 커피(Vienna Coffee)는 사실 카페 아인슈페너(Café Einspänner) 커피로 불렸으며, 에스프레소에 물을 타서 희석한 아메리카노 위에 휘핑크림을 얹어 먹는 커피다. 마부들이 뜨거운 커피를 한 손에 들고 마시기 어려워 휘핑크림과 설탕을 잔뜩 넣어 마시던 것에서 유래했다. 에스프레소 위에 휘핑크림을 얹어 마시는 콘파나(Con Panna)와 비슷하며, 크림의 부드럽고 차가운 맛 뒤에 따뜻한 씩씩한 커피 맛을 함께 즐길 수 있다.

홍(서)지은 기자 약력

USC 동양학과 심리학 전공/라디오 서울·미주 한국일보 기자/현 공인 회계사·슈퍼맘/소셜미디어·웰빙 기사 다수 게재

추수 감사절의 달 11월에 맛보는 '보졸레 누보'



그해 11월 눈은 매서웠다. 벌써 34년이 지난 일이다. 세차게 불어온 눈보라의 찬 바람이 더 차가웠던 이유는 아마도 추수 감사절에 텅 빈 캠퍼스를 홀로 지켜야 했던 외로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미국에서 갈 곳 없이 맞이했던 첫 추수 감사절의 기억이었다.

처음 맛본 칠면조(터키) 고기의 텁텁함. 그나마 서양 와인의 알코올기에 섞어 목으로 넘기던 그때였지만 요즘은 오히려 크렌베리, 그레비, 스테핑 등 사이드디시와 어우러져 군침이 절로 돈다. 이젠 미국인이 다 됐나 싶다.

덩치 큰 칠면조 요리를 가운데 놓고 가족까지 둘러앉아 가슴살을 찢고 여러 종류의 사이드 디시를 담은 그릇 속에 무사히 한해를 넘기는 감사의 뜻이 가득하다. 한국에 추석이 있다면 미국에는 추수감사절이 있겠다.

추수감사절은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다. 올해는 11월 25일이다.

1621년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이 풍성한 가을 추수를 거둔 후 옥수수 등 경작법을 가르쳐주며 정착을 도와준 인디언 부족을 초청해 고마움을 나눴던 3일간의 축제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하지만 흑자는 흉작과 질병에 인디언의 공격까지 받아 가며 간신히 살아남은 청교도 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일이 시작이었다는 설도 있다. 시초야 어찌됐든 분명 한해를 뒤돌아보고 감사하는 미국 3대 명절 중 하나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꼈던 일들을 뒤돌아보고 은혜로움과 화목, 고마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다.

이 추수 감사절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와인이다.

11월 셋째 주 목요일 0시를 기해 전 세계 와인 애호가들을 동시에 찾아가는 보졸레 누보(Beaujolais Nouveau)는 감사의 계절을 맞은 11월을 장식하는 핫 와인이다.

프랑스 남부 부르고뉴 지방 아래 위치한 보주(Beaujeu)라는 마

을에서 생산되는 그렇고 그런 포도 품종 '가메'로 만든 와인이다. 보주지방에서 나는 햇포도주다.

이 포도 품종 가메는 부르고뉴 지방 적포도주의 대명사인 '피노누아'에 눌려 기를 펴지 못했다. 포도 껍질도 얇고 당도는 높지 않은 데다가 적포도주 품종의 최대 무기인 탄닌 성분도 많지 않다.

그래서 오래 두고 숙성 시켜 먹는 와인은 아니고 빨리 담가 빨리 먹는 와인이다. 9월에 수확해 4-5주 숙성시켜 오크통에 부어 마시는 술이다. 전문가들은 6개월을 넘기지 말라고 조언한다. 화이트 와인보다 훨씬 수명이 짧다.

신선도 높고 과일 향이 풍성하지만 당도를 높이기 위해 설탕이 가미돼 도수는 높은 편이다. 제작과정으로 인해 다소간의 탄산기도 맞볼 수 있다.

한때 전 세계가 그해 첫 수확한 핫 와인이라며 보졸레 누보의 열병에 걸린 적도 있었다. 11월 첫 출시일에 맞춰 대대적인 판촉전에 시음회와 파티가 열렸다. 와인을 조금 안다는 사람마다 줄줄이 와인의 족보를 읊조리며 전문가를 자처하기도 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인기가 시들해 옛 추억의 이름 정도. 인기가 시큰둥 해 졌다. 그래도 와인 애호가들은 조용하고 조촐한 파티로 그해 나온 첫 와인의 맛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음미하곤 한다.

지난해 팬데믹으로 프랑스의 모든 축제 행사가 취소됐지만 올해는 전날 오후 5시부터 목요일 새벽까지 보졸레 누보 출시를 기념하는 파티가 열린다.

가격은 테이블 와인치고는 다소 비싼 편으로 10~20달러 정도 한다. 평균 가격은 15달러 정도. 첫 수확한 와인이라는 점에서 레이블이 매우 화려하고 예술적이다.

땡스기빙 1주일 앞서 맛보는 보졸레 누보를 와인 잔에 듬뿍 담아 한해를 추수하는 농부의 심정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려 보자.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이경수 작가
KCC(Kauai Community College, HI) 미술과 교수 역임. (현) Gallery KLBT Art Director



Kent Kahlen



“실용성과 예술성, 두루 갖춘 작품”

Functional Art

실용적인 미적 오브제
기능적 예술은 응용예술

예술의 형태는 크게 7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평면적인 회화, 입체적인 조각, 문학, 영화예술, 음악, 건축과 무대 공연예술로 정리할 수 있다. 예술가들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해 있어도 표현되는 방법과 미디어만 다를 뿐, 창의성을 가장 중요한 공통분모로 갖고 있다.

생활 환경이 차츰 진화될수록 사람들은 그에 걸맞은 문화적 가치에 관심을 두게 되며, 그런 측면에서 예술은 과거보다도 훨씬 우리의 생활 속에 가깝게 오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요즈음이다.

과연, 우리의 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능예술’ (functional art)의 의미는 무엇일까? 기능예술이란 실용적인 목적에 쓰이는 미적 오브제를 말한다. 기능적인 예술은 응용예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용을 위해 만들어지고 목적에 부합되며 미학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예술이다. 기능을 제공하는 예술이지만 아름다움을 표시하기 위해 예술적으로 디자인되기도 한다. ‘이왕이면 다

홍치마’ 라는 말처럼 본래의 기능에 좀 더 미적 감각을 더한 것으로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의자, 램프, 테이블 등 주로 가구 용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매년 5월이 되면 뉴욕의 아모리 센터에서 ‘SOFA’ (Sculpture Objects & Functional Art Fair)가 열린다.

미 국내와 해외의 우수 화랑들이 작가들과 함께 그들의 작품을 선보이는데 감히 상상도 못 했던 기상천외한 창작물들이 쏟아져 나와 종일 전시장에서 살다시피 한 적이 있다. 나도 화가지만 평면적인 그림보다도 훨씬 재미있고 다양하게 느끼는 그때가 처음이었다.

기능예술의 범주는 생각보다 넓다. 가구 디자인 외에도 세라믹, 화이버, 유리, 스톤, 직물, 패션, 가죽 등 세상에 있는 다양한 미디어는 모두 나와 있었고, 작가들의 상상력이 동원되어 표현된 작품들은 실용성과 예술성의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은 결과물처럼 보였다.

창작물들은 신기하고도 아름다운데, 생활에도 쓰일 수 있다니 관람객들에게 그 아트쇼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대중들은 근접하기 어렵고 난해한 예술보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예술성 있는 작품들을 더 쉽게 이해하고 선호한다. 제한되지 않은 소재와 기능성을 겸비한 창작품은 생각만 해도 무

한한 가능성이 있다.

단지, 상업적인 면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미적 철학의 밸런스를 유지할 때 예술품으로서의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되는 것이다. 아트를 상품화했을 때 자칫 우려되기 쉬운 점은 표현보다는 테크닉에 중점을 두었을 때가 되며, 예술(Art)과 공예(Craft)는 모두 창의성이 요구되지만 많은 차이점이 있다.

예술은 주로 예술가의 아이디어와 감정을 표현하는 개인적인 형태의 작품이고, 공예는 공예가가 대가를 받아 이루어지는 작업의 형태다. 따라서 비기능적(non-functional)과 기능적(functional)이라고도 말할 수 있으며, 우리는 각각 예술가(artist)와 장인(artisan)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예술가들의 작품을 통하여 정신적인 교감과 심리적인 위로를 얻는 반면, 공예가들의 작품을 통해 더욱더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사용으로 우리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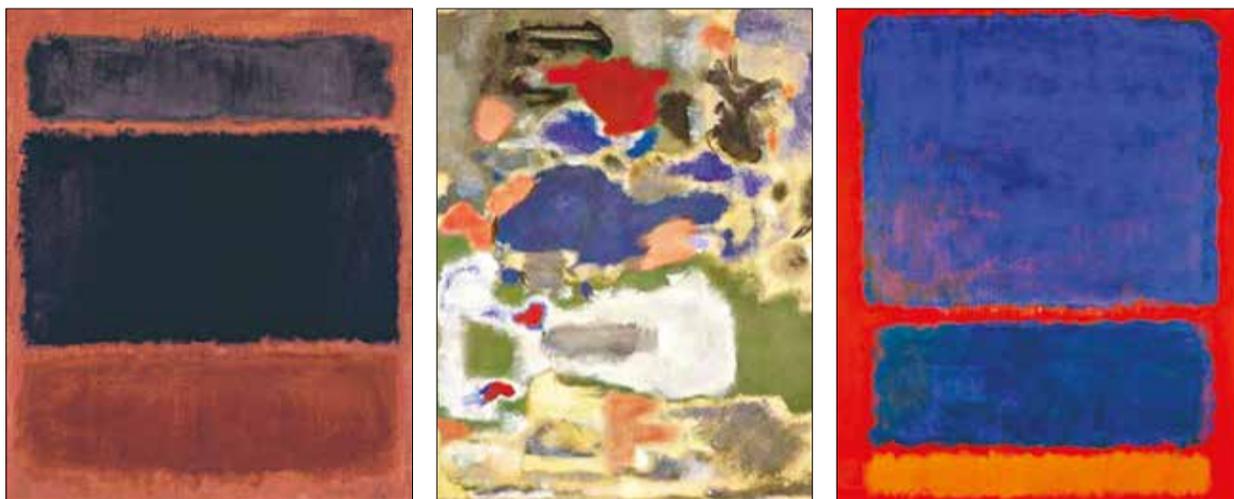
두 가지 모두 우리의 감성지수와 미적 감각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데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며, 공존함을 환영한다.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더욱더 찾을 수밖에 없는 예술의 가치. 여러분이 어떤 쪽에 더 비중을 두는 선택을 할지라도 예술은... 이로운 것이다.



Functional arts - The art collections of Gallery KLBT

색을 통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한 작가



① Mark Rothko의 말기 작품
The dark final years.
② multiform /early years.
③ Blue, Orange, Red

20세기 추상화의 거장

Mark Rothko

젊은 시절 뉴욕에 거주
화가들과 어울리며
자연스레 작품 시작

1980년대 중반으로 기억되는 어느 날, 내가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였던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대학에서 미술 수업의 일부로 다운타운의 MOMA(Museum of Modern Art)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마침 로스코(Rothko)의 회고전으로 기억되는 전시가 있었는데 그 전시회를 보고 리포트를 써내는 것이 수업방식이였다. 책으로만 보아온 마스터의 작품을 실경하는 기분 좋은 흥분감도 있었지만 전시실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에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다.

대형 캔버스들이 빼곡히 전시장을 채운 규모의 압도감에 놀랐고, 그보다도 더 내 마음을 움직인 것은 형태 없는 단순한 색 면 덩어리들이 무언의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이게 뭐지' 하는 복합적인 생각과 감정이 밀려와 한동안 멍하게 와 닿았던 그림들. 내 앞에 펼쳐진 블루빛으로 가득 채워진 거대한 작품들은 단순한 '파란색'을 넘어서 그 색은 묘하게도 내 마음을 출렁이게 하는 충격이었고, 한동안 그 블루빛의 매



력에서 헤어날 수 못한 기억이 있다.

마크 로스코(Mark Rothko)

20세기 추상화의 거장이라 불리는 그는 어떤 작가일까? 거대한 색면(Color Field) 추상의 화가라고 소개되는 그는 1903년 러시아에서 태어난 라트비아계 유대인 출신의 미국 추상화가이며, 현대 미술의 미국 표현주의 운동에 핵심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

10살 때 식구들과 조국을 떠난 로스코는 젊은 시절 뉴욕에 거주하면서 당시의 화가들과 어울리며 자연스레 작품 생활을 시작한다. 화가 막스 웨버를 통해 정통 현대회화 화풍을 소개받았고, 당시의 작품들은 주로 뉴욕의 도시풍경들이었다. 젊은 로스코는 전쟁의 위험과 도시민의 쓸쓸함 등의 사회 문제들을 경험하며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냉정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작품을 하며, 변형된 이미지를 넘어서 상상적인 이미지의 초현실적인 작품들을 하기도 했다.

그 후,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인 미술의 양식으로 화가의 고뇌와 희망을 담아내기 부족함을 느낀 로스코는 독특한 시각언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고대 신화를 탐구하며 사람의 감정에 관심을 두게 되며 인문학, 철학, 미학 등에도 조예가 깊었고, 예술을 통해 정신적 공허감을 상쇄하기도 하였다.

1946년 이후의 작품들을 보면 이전과 달리 형태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추상으로 변해감을 볼 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로스코의 작품 이미지를 대표하는 시기라 말할 수 있겠다. '색과면 만이 본질이다'. 색에 색면이 교차하는 멀티폼(multiform). 거대한 캔버스에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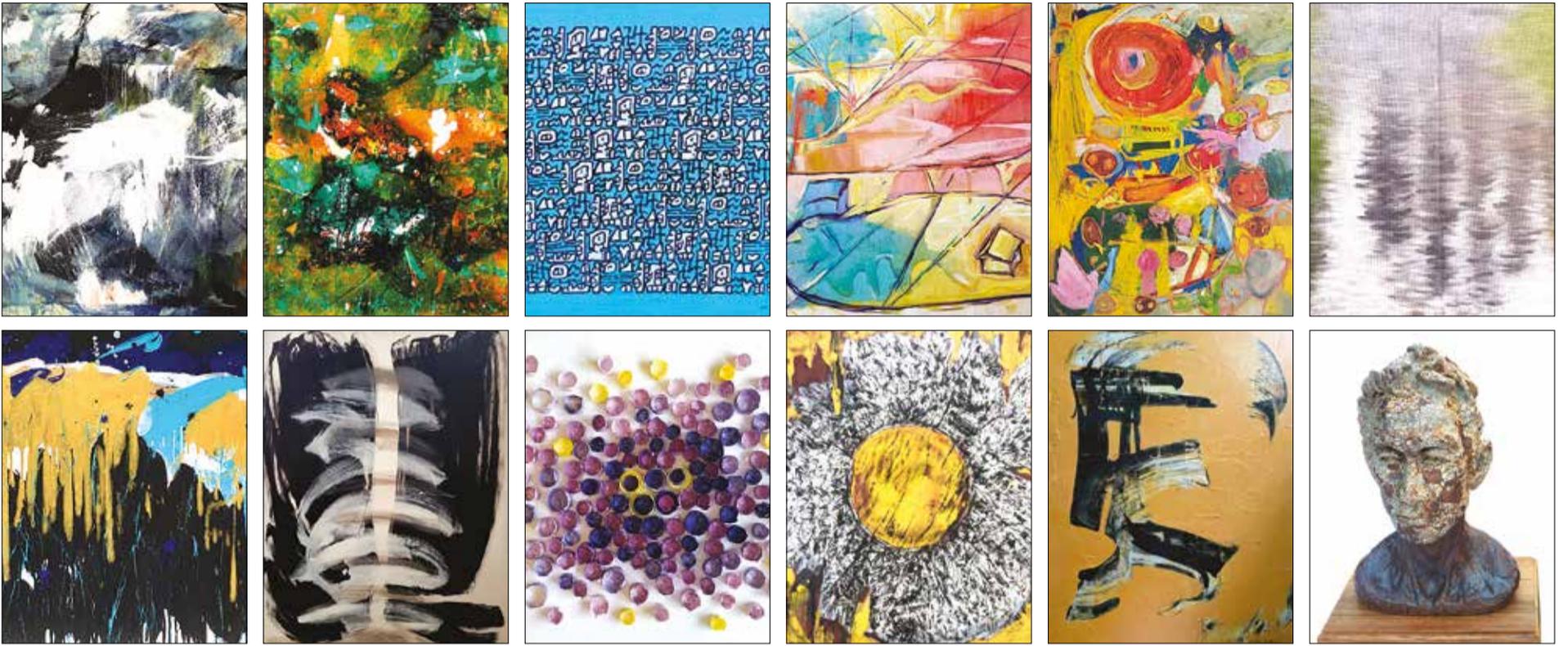
세 개의 색 덩어리들이 놓여있는 간결한 그림들. 색과 색면 사이에 경계선이 없으니 색으로 만들어진 캔버스는 슬픔, 송고함까지 느껴지는 일종의 종교적인 경험이다. 일부 비평가들은 색채표현을 극대화한 예술이라고 말하나 로스코는 "나는 추상화가가 아니다. 색이나 형태 같은 것엔 관심 없다. 비극이나 운명, 인간 본연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만 집중한다"고 반박한다. 즉, 색을 통한 인간의 감정 표현이다. '어떤 것을 그릴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느낄 것인가'는 항상 그의 관심사였으며 관람자들에게는 45cm의 적정거리에서 그림을 보라고 조언한다. 가까운 시야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는 없겠지만 그 거리에선 색으로 둘러싸인 무한한 공간을 경험할 수 있다. 작품 속에 인간의 감성을 채워 넣으면 어떤 것이 느껴질까 스스로

자문한다. 50세가 넘어서 로스코는 유명세와 부를 겸한 화가로서의 전성기를 맞게 된다.

동료 화가들로부터 그가 스티브 잡스 등 부호들에게 인기가 있어 상업주의에 빠져든 화가란 오해도 듣게 되지만,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로스코는 곳곳하게 자신의 예술 철학을 지켜나간다. 수많은 색 덩어리로 그림을 그려왔던 그에게 찾아온 마지막은 무엇이였을까? 바로 검정이었다. 유채색이 사라지고 검정, 회색 등 무채색의 그림들은 로스코가 자살하기 전에 그린 작품들이다.

자신을 의미했던 빨강을 삼켜버린 마지막 색 검정. 그는 이미 죽음을 예견하고 마지막임을 알았던 예술 천재 로스코. 로스코의 작품을 보고 관람객의 70%가 작품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이유를 알 것 같다. 1970년 로스코가 사망 후 텍사스 휴스턴에 세상에 하나뿐인 '예술의 본질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명상의 공간, 예배당 '로스코 채플'이 생겼다.

석유왕 존, 도미니크 부부의 후원으로 그 안에 넣을 그림을 로스코에게 생존에 부탁했는데, 작품 완성 1년후 로스코는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 "내 그림 앞에서 감정을 터뜨려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내 그림과 소중한 순간이다" 그의 말 처럼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 순수하면서 초월적인 영적인 대화와 내면의 울림이 있다면 그 순간 로스코와의 진실된 만남이 아닐까. 로스코는 우리에게 감동과 성찰, 위로와 치유를 남겼다.



맨 윗줄 왼쪽부터 김경옥, 강태호, 김소문, 윤태자, 김태욱, 미셸 오, 둘째 줄 왼쪽부터 홍선애, 김지연, 최지원, 배정연, 이진희, 이경희(케이 리).

12명 작가의 다양한 예술 한자리에

예원·서울예고 동문전

30여 점 작품들
리앤리 갤러리서
11월 12일까지 전시

예원학교 서울 예술 고등학교 남가주 동창회 주최 2021 동문전이 10월 30일 리앤리 갤러리(이 아그네스)에서 개막됐다.

격년으로 진행되는 이번 동문전에는 남가주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 12명의 작가들의 다양한 예술 세계를

선보인다. 7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예술고답게 많은 예술가를 배출한 동문들은 팬더믹을 지나면서 각각의 개성에 더욱 심오해진 심리를 더하여 깊이 있는 작품들을 출품했다.

참여작가로는 김경옥, 윤태자, 홍

선애(Sunny Kim), 강태호, 김소문, 이경희(Kay Rhee) 씨 등의 선배 작가 그룹과 미셸 오(Michelle Oh), 김태욱, 김지연(Jane Chang), 최지원, 배정연, 이진희씨 등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에는 도전과 실험정신이 느껴지는 다양한 표현의 30여 점 작품들을 볼 수 있다. 특별히 이번 전시회의 수익금을 동문회에 기부하기 위하여 모든 작가들이 작품의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전시회는 11월 12일까지 진행된다.

▶날짜: 2021년 10월 30일부터 11월 12일(금)까지

▶장소: 리앤리 갤러리 3130 Wilshire Blvd. #502, Los Angeles, Ca (213) 365-8285

▶시간: 평일 11~6시, 토 12~4시

▶작품구매 및 문의: (951) 541-3188

회원들의 내면세계를 표현한 작품

남가주 한인 가톨릭 미술가회 정기전

성 김대건 안드레다 신부님 탄생 200주년
11월 13일 리앤리 갤러리

제25회 남가주 가톨릭 미술가회 정기전이 11월 13일(토)부터 23일(화)까지 리앤리 갤러리(이 아그네스)에서 열린다.

103위 성당의 윤승식 모세 신부님 영적 지도아래 성 김대건 안드레다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맞아 "당신이 천주교인이오?" 하고 물었던 관장의 물음에 배교를 거부하고 순교하셨던 그 물음을 묵상하며 회원들 각자의 내면세계를 작품으로 표현했다.

회화, 공예, 사진, 도자기 등으로 묵상에 대한 작가들의 느낌들이 다양하게 표현되었으며, 깊은 울림으로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올해의 참여회원은 김윤진, 김성일, 주선희, 김원실, 장제인, 김복인, 권케니, 한헬렌, 박그레이스, 오수완, 심계식, 황수잔, 강세실리아, 김글라

라, 김인철, 시제시카, 양문선, 이미정, 정스텔라, 최유니스, 임주빈, 최미카엘, 정니나, 황데레사, 곽설리, 김줄리아, 이경하, 김미경, 김천애다.

판매 수익금은 필요한 곳에 기부하는 작은 사랑 실천을 하고 있으며, 가톨릭 미술가회 회원이 되려면 세례를 받은 가톨릭 신자이거나 예비자로서 미술을 전공한 분, 3년 이상 활동을 하고 있는 분, 1회 이상의 개인전을 하신 분(그룹전 3회이상) 중에 2개 항목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가입 의사가 있는 분은 김천애 회장(626)221-4220)에게 연락하면 된다.

▶날짜: 11월 13일부터 23일까지

▶장소: 리앤리 갤러리 3130 Wilshire Blvd. #502, Los Angeles, Ca (213) 365-8285

▶시간: 평일 11~6시, 토 12~4시

제 25회 남가주 한인 가톨릭 미술가회 정기전
25TH ANNUAL KOREAN CATHOLIC ARTISTS ASSOCIATION EXHIBITION

25TH

"그렇소. 나는 천주교인이요"

- 성 김대건 신부님 말씀

NOV. 13 SAT. - NOV. 23 TUE., 2021
OPENING RECEPTION: NOV. 13 SAT., 2PM - 5PM

LEE & LEE GALLERY
3130 WILSHIRE BLVD., #502,
LOS ANGELES, CA 90010
213.365.8285

HOURS:
MON. - FRI. 11AM - 6PM | SAT. - SUN. 11AM - 4PM

지도신부: 윤승식 모세

김경옥, 김태욱, 김지연, 최지원, 배정연, 이진희, 이경희, 미셸 오, 김소문, 김윤진, 김성일, 주선희, 김원실, 장제인, 김복인, 권케니, 한헬렌, 박그레이스, 오수완, 심계식, 황수잔, 강세실리아, 김글라, 김인철, 시제시카, 양문선, 이미정, 정스텔라, 최유니스, 임주빈, 최미카엘, 정니나, 황데레사, 곽설리, 김줄리아, 이경하, 김미경, 김천애다.

연방정부 연 1만 달러 입출금 내역 뒤진다

재무부 탈세자 색출 안 의회에 제출

조 바이든 행정부가 1년에 1만 달러 이상 입출금되는 모든 은행 계좌를 조사할 계획이다.

은행은 이런 내역을 IRS에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부는 당초 금액을 600달러 이상으로 했다가 반발이 심하자 이를 1만 달러 이상으로 상향한 것이다.

이번 계획안은 수입이 많으면서도 세금 보고는 잘 하지 않는 탈세자 색출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화당 등 인권 단체들은 사생활 침해라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IRS는 은행으로부터 급여로 지급된 수입을 제외한 연 1만 달러 이상 입출금 은행 계좌 내역을 받는다. 하지만 개인 정보는 받지 않는다.

급여는 자동으로 연방 세금을 공제하고 지불되므로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실적 수당과 소셜 시큐



리티 연금 역시 제외된다.

재닛 옐린 재무부 장관은 “수입을 1만 달러로 보고하면서 실제 은행에서는 1,000만 달러 이상의 출금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자”면서 “이

런 은행 정보로 IRS는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불필요 하는 감사로 납세자들의 세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가주, 2024년 이후 잔디 기계 등 개스 동력 엔진 판매 금지

배터리, 전기 제품으로 대체

캘리포니아가 잔디 기계 등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개스 엔진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금지법에 따르면 전기를 발전하는 발전기, 잔디 깎이 기계, 고압 세척기, 체인톱, 골프 카트 등 모든 종류의 오프로드 개스 엔진 판매를 금지한다. 이들 장비를 판매하려면 배출 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배터리나 전기용만 가능하다.

이번 금지법으로 거의 5만여 스톡 비즈니스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는 전문 정원사 등의 개스 동력 장비 사용 중단을 위해 3,0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기 동력 장비 구입비 등 재정 부담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국 정원전문인 협회는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장비는 매우 비싸고 개스 동력 엔진에 비해 효율도 크게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승차식 개스 동력 잔디 기계의 비용은 대당

7,000~1만1,000달러가량이지만 전기 장비는 이보다 두 배는 더 비싸다고 이들 단체는 밝혔다.

이 법은 2024년 1월, 또는 주 정부가 ‘실현 가능’ 하다고 판단하는 것 중 늦은 쪽으로 택해 시행된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자원위원회는 이미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절차에 돌입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2035년부터 배기가스 ‘제로’ 자동차 판매를 시작한다는 행정 명령에 2020년 9월 서명한 바 있다. 또 2045년 목표로 새 버스와 트럭 세일 역시 배기가스 ‘제로’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개스 스토브를 더 이상 사용 금지시키는 캘리포니아 도시들이 늘고 있다. 북가주 리치몬드 이번 달 신규 건물의 개스 스토브 사용을 금지시키는 조례안을 투표할 예정이다. 화석 연료 사용을 줄여 대기 오염을 방지한다는 목적이다. 이미 버클리나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주내 50여 도시들이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 외국인 백신 접종자만 미국 입국 가능

종교적 예외 인정 안 돼

11월 8일부터 대부분 국가의 외국인들은 백신 접종을 마쳐야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연방 국무부는 미국에 입국하려는 비 이민 외국인들은 WHO가 인정하는 백신 접종을 마치고 3일 전 코로나 음성 테스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백신 의무화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종교적 이유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는 의무화에서 제외됐다.

또 그동안 14일 동안 해당 국가에 머물렀던 외국인들의 미국 입국 금지 조치도 해제됐다. 이들 국가로는 영국을 포함해 국경 통제가 없는 유럽 26개국, 중국,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 아일랜드, 이란 등이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와 이민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은

백신 접종 증명은 필요 없다. 다만 비행기 탑승 1일 전 음성 테스트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미국 도착 후 반기 위한 바이러스 테스트기를 구입했다는 증명을 함께 보여줘야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

입국 가능한 백신으로는 모더나, 화이자, 존슨&존슨 등 미국이 인정하는 백신과 세계 보건기구(WHO)가 인정하는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시노백도 포함된다.

LA 식당·미용실 등 이용하려면 백신 맞아야

11월 4일부터 전면 시행 체육관, 극장, 뮤지엄 등

LA 시내 식당 등 실내 영업장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식당, 체육관, 뮤지엄, 극장, 미용실 등이다.

LA시 의회는 지난 10월 6일 본회의 투표를 통해 11월 4일부터 완전 백신 접종자만 식당 등 실내 비즈니스 입장을 허용했다. 다만 백신 접종

이 어려운 건강 상태 또는 종교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72시간 내 코로나바이러스 음성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일부 시의원들은 LA시의 결정이 백신 접종 증명서 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만 허용하는 LA 카운티 훈령을 따르는 주변 소도시들 정책과는 상충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캘리포니아는 보건 의료 시설 종사자의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하면서 백신 접종률이 90% 이상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백신 증명을 의무화했던 뉴욕은 1차 접종자도 실내 영업 시설 출입을 허용했다. 또 샌프란시스코 등 캘리포니아 일부 도시와 카운티에서도 이와 유사한 의무화 정책을 시작하고 있다.

지난주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올가을부터 학생들의 백신 의무화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 주로는 처음이다.

컴퓨터 수리점



‘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김동희의
세상보기

시더스-사이나이 암센터
코디네이터

무료 유방암 검사 위해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준
커뮤니티 파트너들에 감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웃케어클리닉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유방암 예약하고, 정기검진이랑 안과, 치과 검사까지 다 예약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얼마전 전화 한 통화를 받았다. 두 번째 통화였다. 우리가 처음 이야기를 나눈 것은 무료 유방암 검사 예약 때문이었다. 유방암 인식의 달인 10월을 맞아 이웃케어클리닉과 한인 교회, 신학교 등과 함께 대대적인 무료 유방암 검사 행사를 펼쳤다.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전화 통화를 하지만 이분과의 대화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데는 이유가 있다. 과연 한 사람이 유방암 검사를 받기까지 몇 명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어느 날 친구가 유방암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하더라. 귀담아듣진 않았다. 교회에 갔더니 10월엔 유방암 검사를 받으라고 광고가 나왔다. 관심이 갔지만 이내 잊어버렸다. 그리고 며칠 뒤 TV 뉴스에서 무료 유방암 검사 안내를 또 보게 됐다.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첫 통화가 이뤄졌다. 이야기를 나뉘보니 메



시더스-사이나이 건강형평성연구소와 한인들의 유방암 검사율 향상을 위해 함께 일하고 있는 커뮤니티 파트너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디칼이 있지만 주치의의 몰라서 병원은 기본 적이 없는 경우였다. 유방암 발생이나 위험요소, 검사 권고 기준 등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가에 온라인 유방암 교육 프로그램으로 안내했다. 이 교육을 담당하는 최영화 헬스워커의 도움으로 이웃케어클리닉과 연결됐고, 결국 10월 말 유방암 검사 예약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 통화를 했다. 검사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계속 있었다고, 하지만 어디로, 어떻게 연락해서 병원에 갈 수 있는지 몰랐는데 모든 일이 잘 해결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기분 좋게 전화를 끊고 이 ‘한 사람’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주변에

서 도와준 수많은 이들을 생각했다. 친구, 교회, 언론, 헬스워커, 클리닉 직원 등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내 이웃을 위해 조금씩 손을 내밀고 마음을 모은 덕분이었다.

10월 한 달 동안 무보험, 저소득층 여성 80여 명이 무료 유방암 검사를 받았다.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커뮤니티 아웃리치 코디네이터로 일하다 보니 여러 사람이 함께 애썼는데 마지막 감사 인사는 내가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올해는 감사 인사들을 2021년 10월 무료 유방암 검사를 위해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준 커뮤니티 파트너들에게 돌려드리고 싶다.

“소중한 ‘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커뮤니티 파트너: 이웃케어클리닉, 캘리포니아 건강연합(CHC), 남가주새누리교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LA온누리교회, 월드미션대학교, 웨스트힐장로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재미한인직업전문학교, 한길교회.

김동희

현재 시더스-사이나이 암센터 건강형평성연구소의 커뮤니티 아웃리치 코디네이터로 활동 중. 전 미주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기자. ‘미국엄마의힘’ 저자.

▶연락처: (310)423-7410

“무료 혈액검사와 독감 예방 접종을 받으세요”

LA 온누리교회, 11월 14일 무료 혈액검사와 독감접종



LA 온누리교회(담임목사 이정엽)가 오는 11월 14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교회(743 S. Grand View St. LA, CA 90057)에서 무료 독감 예방접종 및 혈액 검사 행사를 개최한다. 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독감 예방접종과 혈액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행사 홈페이지(www.yudogo.com)를 통해 사전 예약해야 한다. 독감 예방접종은 1세 이상 어린이와 성인 모두 가능하다. 행사 당일 시더스-사이나이 건강형평성연구소도 안내 부스를 마련, 대장암과 유방암에 대한 정보와 무보험,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검사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이번 혈액 검사를 통해 백혈구·적혈구·헤모글로빈·당 수치를 비롯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정도를 알 수 있으며 간·신장 기능 상태도 점검해 볼 수 있다. 채혈 예약을 한 사람은 8시간 금식(물도 안됨)해야 한다.

LA 온누리교회가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 혈액검사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올해로 두 번째로 2019년 148명의 한인과 히스패닉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혈액검사로 기본 건강을 진단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예약 및 문의: www.yudogo.com

알아두면 쓸모있는 의료 영단어(10)

Hives 두드러기 (하이브즈)

피부나 점막에 있는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되면서 일시적으로 피부가 붉거나 흰색으로 부풀어 오르는 증상으로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피부질환. 기간에 따라 6주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는 급성 두드러기와 6주 이상 지속되는 만성 두드러기로 분류한다.

Tetanus 파상풍 (텃너스)

상처 부위에서 증식한 파상풍균이 만들어내는 신경독소가 신경세포에 작용하여 근육의 경련성 마비와 통증을 동반한 근육수축을 일으키는 감염성 질환. 10년마다 예방 접종한다.

Myocarditis 심근염 (마요카르다이트)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심장 근육에 급성 또는 만성으로 염증이 발생한 상태. 흉통이나, 호흡곤란, 열, 오한, 근육통이나, 관절통 및 기운 없음 등의 호소한다. 많은 경우 문제없이 회복되지만 심부전 및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Wheezing 쌉쌉거림 (휘징)

숨을 쉴 때 좁아진 기관지를 따라 공기가 통과할 때 들리는 특징적인 호흡음으로 들숨보다는 날숨 때 발생하는 숨소리. 기관지를 넓혀주는 확장제를 사용하면 호전된다.

제1회 시니어 미술공모전

접수 기간

2021.11.15~2022.1.15

참가대상 55세 이상 미술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

작품 주제 My Memorable Time(나에게 소중한 시간)

작품 규격 캔버스나 종이(18×24인치를 넘지 말 것)

미 디 어 수채화, 유화, 아크릴화, 믹스드 미디어

참 가 비 50달러(1인 1점)

시 상 대상, 1, 2, 3등 입선작(20명) ※리앤리 갤러리 전시

심사 발표 2022년 본보 2월호 공지, 개별 통보

신청 및 (213)365-8285 이 아그네스

작품 제출 리앤리 갤러리(3130 Wilshire Blvd. #502, LA, CA 90010)



까끌까끌 메밀면,
알싸달달 **양념장!!**
시원하게 즐기세요
메밀막국수

